

碩士學位論文

어린이 哲學教育 方法의 한 模型



濟州大學校 大學院

哲學科

姜銀美

2008年 月

어린이 哲學教育 方法의 한 模型

指導教授 尹龍澤

姜銀美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月

A Model for Philosophy Education for Children

Kang-Eun-Mi

(Supervised by Professor Yongtaek Yo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2007. 12.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차 례

| | |
|-------------------|----|
| I. 서론 | 1 |
| II. 어린이 철학의 가능성 | 4 |
| 1. 어린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 4 |
| 2. 어린이의 능력과 성향 | 6 |
| 3.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 9 |
| 4.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 | 11 |
| III.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론 | 13 |
| 1. 철학교육의 방법들 | 13 |
| 1)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 13 |
| 2)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 17 |
| 3) 철학적 탐구공동체 | 19 |
| 2. 어린이 철학교육의 텍스트 | 25 |
| 1) 교과서를 활용한 철학교육 | 25 |
| 2) 매체를 활용한 철학교육 | 29 |
| 3)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교육 | 33 |

| | |
|-------------------------------|----|
| IV. 어린이 철학교육의 구체적 모형 _____ | 38 |
| -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 |
| 1.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의 한 모형 _____ | 38 |
| 1)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자유’의 문제 _____ | 35 |
| 2) 철학수업을 위한 학습계획안 _____ | 40 |
| 2. 교과서를 활용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_____ | 43 |
| 1) 도덕과에서의 ‘자유’ 문제 _____ | 43 |
| 2) 사회과에서의 ‘자유’ 문제 _____ | 45 |
| 3. 매체를 활용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_____ | 52 |
| 1)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교육 _____ | 52 |
| 2) 만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_____ | 57 |
| 3) 신문을 활용한 철학교육 _____ | 60 |
| 4) 동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_____ | 63 |
| 4.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_____ | 66 |
| V. 결론 _____ | 69 |
| 참고문헌 _____ | 72 |
| Abstract _____ | 75 |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해 사회화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각하는 힘’이다. 하지만 현 교육제도 내에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면 벌써 입시학원에 들어가 문제풀이식 공부만을 답습하는 게 현재의 실정이다. 그리고 ‘논술’이라는 평가 과목이 생겨서 학생의 사고력을 측정하고 있으나 이것도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고, 타과목과 마찬가지로 주입식으로 단시일에 답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논자는 여러 해 동안 사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책과 토론을 통해 사고력을 기르는 일을 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과정과 맞물리지 못할 때 또 하나의 과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통감하고 있다. 이에 어린이들에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일상과 교과과정, 익숙하게 만나는 매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이 논문을 준비하였다.

‘철학’은 몇 사상가나 철학자들의 이론만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물음을 던지는 학문’이다. 철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살아가는 데도 기반이 되는 공부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을 놓고 ‘근본적으로 물음을 던지고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학습자의 지적 수준, 지적 발달 상황, 흥미도 등을 고려한 교육이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죽는가’와 더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서 던지면서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는 것’에 한정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시대 최고의 교육목표가 돼버렸다. 어렸을 때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공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살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며, 자신의 삶의 의미조차 찾지 못하는 불행한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¹⁾

그래서 철학교육이 필요하다. “철학교육은 ‘철학’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기보다는 ‘철학함’을 가르치는 과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²⁾ 여기서 말하는 ‘철학함’이란 막연히 ‘생각을 떠올려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며, 합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그런데 ‘철학함’은 어떻게 가능할까.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직면하고, 철학적 성찰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철학적으로 객관화하는 기회를 통해서 가능하다”³⁾ 의견에 논자도 동의 한다. 또한 철학교육은 ‘앎’을 추구하고, ‘반성’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며, 더 나은 세상으로의 ‘다가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참된 의미가 있다면 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철학적 물음에 가깝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 철학교육은 성공적이다. 그곳에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연구와 교육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사명감을 갖고 평생을 연구에 몸담은 학자들⁴⁾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들이 내놓은 이론을 바탕으로 한 철학교재가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즉 그만큼 수요가 많았다는 뜻이다. 이 수요는 그 당시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존의 교육에 대한 반발과 절름발이식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자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⁵⁾

오스트리아 그라쯔(Graz)에 어린이 철학연구소를 세운 다니엘 카미(Daniela G. Camhy)의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 철학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주어진 과제 수행능력,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유연하게 바라보는

1) 선재순, “철학함을 가르침의 의미”, 『철학교육연구』,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제 18권 31호, 2002, 4쪽
2) 윤석우, “플라톤의 『파이돈』을 통한 철학교육 모형 연구”, 『철학교육연구』 제 14권 27호, 1998, 119쪽
3) 선재순, 앞의 글, 4쪽
4) 리프먼 교수를 중심으로 하여 개발한 IAPC의 철학교육 프로그램은 이 분야의 대표적인 모델이며, 이미 고전적인 작품으로 세계가 공인하게 되었다.
5) 미국 어린이 철학개발원 (IAPC) 은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몽클레어 주립대학 부설 철학교육 연구소이다. IAPC는 매튜 리프먼 (M. Lipman) 박사에 의해 1970년대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초중등 학생을 위한 여러 가지 철학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왔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지혜의 학문으로 수천 년간 인류에 의해 전수되어온 철학은 그러한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아주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 그간 IAPC가 개발해 온 철학교육 프로그램의 바탕에 깔린 기본적인 신념이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는 능력과 관점 선택의 독창성에서 크게 앞선다. 어린이 철학 수업을 통해 길러지는 논리적, 독창적 사고 능력은 다른 과목의 수업에도 영향을 미쳐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진다. 어떤 문제에 대해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사고하는 능력이 학업 수행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에 논자는 어린이들에게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철학적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훈련이 이루어져 하며, 그 물음의 대상은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손쉽게 만나는 매개물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 철학교육의 텍스트는 어린이들이 주로 접하는 교과서, 그림책, 동화, 만화, 신문 기사, 체험 학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논자는 독서와 글쓰기 교육을 하면서 만나온 수많은 어린이들로부터 듣게 되는 일상의 불만 중에 가장 많은 대답이 “자유롭고 싶다”는 의견이다. 학교 공부와 학원 공부에 시달리고, 부모님과 선생님의 잔소리에 시달리고, 주변의 물질 중심적 유혹에 시달리면서 어린이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 그러면서 “자유를 달라”는 강렬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현대의 사회 환경이 어린이들에게 짐 지어준 대가라고도 할 수 있고, 지나친 경쟁 중심의 교육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논자는 어린이들의 ‘자유’에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 한 사회의 건강한 의식을 가진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따져보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린이를 위한 철학교육의 구체적인 모형을 구상하면서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 어떻게 어린이 철학교육이 가능한지를 연구해보았다.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펼쳐 보았고, 제 2장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텍스트 연구, 제 4장에서는 실제 어린이 철학교육의 구체적 모형을 ‘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Ⅱ.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1. 어린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어린이 철학교육의 대상은 어린이이다. 먼저 ‘어린이’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아동(兒童)’을 한글로 표현한 말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개념은 아동을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아동의 개념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고대 그리스시대에는 아동은 성인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을 받는 시기로 보았으며, 로마시대는 성인이 되어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나 군대생활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을 통해 준비시키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고대에는 아동을 성인의 전기로 또는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육의 대상은 남자아이들뿐이었으며, 여자아이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보고 배우는 시기로 여겼다.

아동을 특별한 존재로 보기 시작한 것은 그리스도 정신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천진무구성을 강조하면서부터이다.⁶⁾ 그러나 이 시기에도 부모가 없는 아동들은 싼 노동력의 제공자가 되어 불우한 아동을 보냈다. 문예부흥기를 거치면서 다시 고대의 아동관이 부활하여 아동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아동을 어른들의 축소판으로 보았다. 한편 18세기 후반기에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는 인간은 사회기관의 영향에 의해 타락하므로 아동들은 그러한 간섭이나 영향 없이 발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동들은 추상적인 문자를 통해 배우기보다는 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배움을 주장하여 극단적으로 오직 자연만이 그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어린이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했다.⁷⁾

6) 이주한,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창지사, 2007, 131~252 참조

필립 아리에스는 『아동의 탄생』, 제 1부 ‘아동에 대한 의식’에서 아동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저자는 아동의 본성에 대한 근대적 인식과 함께 근대적 교육이 어떤 경로로 진화했는지 그리고 근대적 가족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인생의 독자적인 한 시기로서의 아동을 발견한 것은 서구의 발전 과정에서 최근에 와서야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중세 말까지 아동은, 거의 쫓겨나듯 어른들 속에 섞여 그들과 경쟁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노는 작은 성인(成人)으로 간주되었다. 어른과 아이의 분리를 장려하고, 아이와 그의 교육을 가족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새로운 의식은 아주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

19~20세기 초에는 아동에 관한 연구가 인간의 행동을 관찰, 기록하면서 보다 실험적인 노력이 지속되었다. 다윈⁸⁾이나 스텐리 홀의 연구는 아동들이 어른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유기체로 인식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러한 연구가들의 연구에서 아동은 자연스러운 존재로서 어른들과는 다른 특성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되었다. 프로이드는 아동기의 어린 시절 5세까지가 이후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고, 성인 때 발견되는 신경·정신적인 행동의 문제는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유래되는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⁹⁾ 프로이드는 아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인간의 성장발달을 성적행동의 변화에 의해 구분했다. 그는 아동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이는 존재로 설명했다. 20세기 비넷(Binet), 지젤(Gesell), 삐아제(Piaget)의 연구로 인해 아동을 자기 발전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그들을 목적의식적인 지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¹⁰⁾

그렇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철학교육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철학’은 생각이 가능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철학은 생각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세계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누군가 정리해

7) 루소, 『에밀』, 신윤표 옮김, 산수야, 2005, 54~67쪽 참조.

루소는 호기심 있고 활발한 아이의 특성과 어른의 행동을 하기를 요구하는 그 사회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강조하였다. 루소는 아이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측면은 개인적인 성향과 더 큰 사회로부터의 요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어른은 아이의 자연적인 발달과 기운을 억압하고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발달과정에서의 어린이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의 사고는 이러한 루소의 생각에 기초를 두고 있다.

8)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개인의 발달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아이들을 연구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진화론을 지지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기 위해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연구하였다. 즉 다윈은 인간의 행동과 다른 종의 행동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진화적으로 동일한 조상을 가진 결과라고 가정하고, 인류의 기원에 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려는 목적에서 자신의 어린 아들의 생후 3년간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9)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단계마다 의식과 성격이 각기 다른 자각 수준으로 그 기능을 담당하면서 인간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간발달의 시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리비도를 들 수 있다. 리비도는 일반적으로 성적에너지를 뜻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프로이드는 리비도를 성본능, 성충동의 뜻으로서 보통 말하는 성욕 다시 말해서 성기와 성기의 접촉을 바라는 욕망과는 다른 넓은 개념의 성욕을 말한다. 프로이드는 리비도가 사춘기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발달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서서히 발달한다고 보았다.

10) 피아제는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발달 가능성을 예측하고 그 단계에 따른 교육방법을 체계화 한 인지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는 종래 교육에 있어서 아동 중심의 교육을 본 궤도에 올려놓은 획기적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놓은 생각을 읽거나 해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그 연령은 아마도 5세를 전후로 한 유아기 때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어린이 철학교육의 대상을 초등학생 연령(6-12세)을 대상으로 한정한다.

2. 어린이의 능력과 성향

어린이 철학교육이 제대로 행해지려면 아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 것 같다. 아동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대한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삐아제의 아동발달 단계이론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삐아제는 아동의 인지발달 단계를 4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즉 1단계는 감각운동기(출생-2세), 2단계는 전조작기(2-7세), 3단계는 구체적 조작기(7-12세), 4단계는 형식적 조작기(12-15세)이다.¹¹⁾

우리가 어린이 철학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어린이는 피아제의 분류법에 따르면, 2단계인 전조작기 후기에 해당하는 직관적 사고기(4-7세)에서 3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두 시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직관적 사고기(4~7세)

이 시기의 유아의 판단은 언어화되지 않는 모호한 인상이나 지각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상징적 매체, 즉 언어가 개입되지 않은 직관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시기 유아의 사물에 대한 판단은 흔히 잘못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마주 하고 있는 선생님이 "오른손을 드세요" 하면서 오른손을 들면 유아는 선생님의 말을 무시하고 선생님의 오른손은 자기의 왼손방향에 있으므로 왼손을 들곤 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직관적 사고기라고 말한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① 사물을 분류할 수 있고, ② 논리적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③ 수의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하며, ④ 언어의 발달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상상력이 최고조로 발달하는 시기여서 혼잣말이 늘기도 하고, 한 사물을 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꾸며 노는 것을 즐겨하는 시기라고 할

11) 현정환, 『아동발달의 이해』, 창지사, 2005, 111~112쪽 참조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자기 중심성이 강하고,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은 부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¹²⁾

2) 구체적 조작기(7~12세)

이 시기는 구체적 논리의 시기로 특정사실에 따라 사물을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은 사물을 위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 중심성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언어도 사회화 되어 간다. 다른 관점을 이해하게 되고, 한 사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¹³⁾

또 이 시기는 양, 무게, 부피의 보존 개념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다. 보존 개념을 획득한다는 것은 상보성, 가역성의 원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과 같다. 전 조작기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이 시기에 와서 탈자기중심적 사고로 바뀌게 되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러한 삐아제의 이론을 바탕으로 본다면 철학교육의 시작은 직관적 조작기부터 가능하지만, 본격적인 어린이 철학교육은 구체적 조작기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왜냐하면 구체적 조작기 이후부터는 사물이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 할 수 있게 되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인지를 생각할 수 있고, 정리된 자신의 생각을 글과 그림, 말로 설명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철학적 활동물의 축적이면서 철학적 활동 그 자체이기도 하다. ‘철학적 활동물’의 축적물을 이해하는 교육이 어린이 철학교육이 아니라 ‘철학적 활동’을

12) 이성진 외, 『교육심리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7, 91쪽 참조.

삐아제는 전조작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언어의 발달이라고 보았다. 그는 “언어는 지적(정신적) 발달에 있어서 본질적인 세 가지 중요성을 가진다. 첫째, 다른 사람과 언어적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행동의 사회성을 미리 알려준다. 둘째, 단어의 내면화이다. 이는 사고의 출현을 의미하는 데, 내면적 언어와 기호 체제에 의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내면화인데, 이때까지의 순전히 감각·동작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영상과 정신적인 활동에 의해 직관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13) 현정환, 『아동발달의 이해』, 창지사, 2005, 111~112쪽 참조

어린이 철학교육의 주된 내용이라고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읽을 줄 알고, 일반화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면 철학은 가능하다고 해도 될 것이다.

어린이에게 철학이 가능할까를 좀 더 객관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비고츠키(Vygotsky)의 이론을 살펴보면,¹⁴⁾ 더욱 그 가능성은 열리게 된다. 비고츠키는 사고발달, 언어발달, 개념형성, 자발적 주의 등의 고등 정신 기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인지적 작용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 문화적 배경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¹⁵⁾ 즉 발달의 일정한 단계에 따라서만 아동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성격, 어른들의 성숙도와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피아제와 달리 그의 이론은 어린이 철학이 더욱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아이들은 연령이나 성장 단계 따라 ‘인지 변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의 속도와 내용이 대부분 일정하다. 그런 점에서 피아제의 연구 결과는 거의 맞는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의 인지 변화 또는 성숙도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는 ‘능력’의 ‘발달 단계’가 아니라 ‘성향’의 ‘변화 과정’일 뿐이다. 아이들이 객관적이고,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기보다는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충분히 능력을 개발하고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 이를 이끌어 낼 어른이 있다면, 그러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와 문화가 조성된다면 어린이들에게서 무한한 창조성이 개발될 것이다. 이를 믿는다면 어린이 철학교육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4) 비고츠키(Vygotsky)의 인지발달 이론은 근접발달지대, 비계설정, 언어발달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접발달지대란, 아동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발달 수준과 성인의 지도나 유능한 또래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발달 수준간의 간격을 말한다. 비계설정이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의 능력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조절함으로써 상대의 학습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비고츠키는 언어가 인지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사고는 언어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비고츠키는 부모, 교사, 동료 학습자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였으며, 부모나 교사가 단순한 관찰자나 보호자가 아니라 지식 형성의 촉진자로서 타인역할을 중시한 이론을 펼쳐 진보적 교육 방안이나 수업 모형 개발시 배경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5) 추병완, “구성주의와 도덕교육”, 『철학교육연구』 제15권28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9, 15~16 쪽 참조

3. 어린이 철학교육의 가능성

어린이는 그 자체가 철학자이다. 3세 이후 언어가 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린이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다. 어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하는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질문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을 뿐이다. 본래는 어린이 그 자체가 철학자라고 할 수 있다.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고력’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자라면서 무수한 문제 상황에 부딪치게 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따지면서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고력은 길러지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력을 기르는데도 시기가 있다. 사고력은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문제에 부딪치면서 수많은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질문에 답해보고, 다른 이와 생각을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은 습득된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 그것이 바로 철학공부이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대한 사물을 관찰하고, 물음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훈련이 전제되었을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지나친 입시경쟁의 풍조가 어린이 교육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어렸을 때부터 주입식 지적 교육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지적, 정서적으로 통합된 전인적 인간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적 교육의 목표라면 이에 부합된 제대로 된 교육이 행해져야 한다. 이에 어린이들이 갖고 있는 순수한 물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의해 세계를 받아들이고 정리해낼 수 있게 하는 철학 교육이 어린시기에 필요하다.

어린이는 늘 궁금해 한다. ‘하늘이 왜 파랗까?’, ‘개미는 배가 저렇게 작은데 어떻게 살아갈까?’, ‘소는 왜 풀만 먹는데 살이 찢까?’, ‘사람은 정말 모두 죽을까?’. ‘죽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하늘에 하느님이 정말 있을까?’ 등등. 이런 궁금증을 안고 끊임없이 물어댄다. 하지만 이런 물음에 어른들의 대답은 시큰둥하다. 어른들의 무성의가 어린이들의 궁금증에 돌을 던지고 결국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그럼으로써 사고도 막아버린다. 만약 그들의 물음에 성의껏 대한다면

한층 어린이들은 생기를 얻을 것이다. 표정도 밝아지고 생각도 트이고, 나아가서 지금처럼 ‘생각이 없는’ 아이로 전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린이는 “본질적으로 철학적 물음을 안고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순수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한다.¹⁶⁾ ‘나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내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걸까?’, ‘사랑의 마음은 왜 변하는 것일까?’, ‘내가 어른이 되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까?’ 등 이 모든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산다. 하지만 그 물을 받아줄 상대가 없고, 일상은 너무 바쁘다. 즉 진지하게 대화할 상대가 없으며 상황은 바쁘게 돌아가고 말면서 ‘생각’의 기회는 줄어들고 따라서 서서히 사고는 굳어지고 마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순수성을 회복시켜주고 철학적 자질을 복돋아 주려면 우선 어른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하며 생각할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그 연령의 한계상 재미가 없으면 몰입을 할 수 없다. 우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아마도 ‘놀이’의 형태여야 한다. 관찰도, 이야기도, 토론도 놀이식으로 하다보며 어린이들은 몰입하게 될 것이다. 당장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게 되겠지만 어린이들의 몸과 마음에 체화된 ‘생각’은 언젠가는 건강한 사고와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어른인지 애인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많이 한다.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성숙도가 빨라서 어린이들도 어른스러워졌다는 말일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이가 어른처럼 생각과 마음이 경직되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아마도 후자 쪽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어린이 스스로 어린이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창 뛰놀면서 이 세계를 마음껏 탐색하고 조사할 시기에 방 안의 좁은 세계로 밀어내버리고 만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일이다.

16) G. 매튜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교육대학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광사, 1987, 44쪽

4.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상정하고 있다.¹⁷⁾

- 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양성
- ② 정보화 사회에 맞는 능력 있는 인간 양성
- ③ 바른 인성을 갖춘 인간 양성
- ④ 전통사회의 가치를 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바른 품성을 가진 인간 양성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목표도 전인적, 자주적, 통합적 인격의 완성에 있다.¹⁸⁾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목표는 한마디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주적 인간’은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 또한 ‘창의적 인간’은 하나의 사물을 다각적으로 볼 줄 알며,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내는 인간을 말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육 과정의 목표는 철학교육의 목표와 거의 동일하다. 철학교육의 목표 또한 “어떤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 어린이들로부터 철학교육을 통해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론의 능력과 논리적 해석의 능력을 기를 수 있다.²⁰⁾ 어린이는 ‘왜’라는 질문을 달고 산다. ‘왜’라는 질문은 어떤 사물과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어떤 사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묻는 과정에서 추론의 능력과 논리적 해석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어

17)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국어, 도덕, 사회과』, 2005, 2쪽 참조

18) 교육인적자원부, 『7차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4쪽 참조

19) 위의 책 2쪽

20) 정해창 외, 『철학-교사용지도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2쪽

린이는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사상(事象)을 점점 내적으로 표상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는 발달의 단계를 거치면서 언어화 되고, 언어는 이를 사회화 시켜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²¹⁾

둘째, 논리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사고를 기른다.²²⁾ 창의적인 생각은 고등사고의 영역이다. 창의적 사고가 가능하려면 어떤 것(상황)에 대해 상상력이 동원되고, 논리적 추론의 과정을 통해 잘 이해한 후,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사고를 하게되는 것이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왜 그러한지 상상력을 발휘하여 추론의 과정을 거치고, 논리적인 귀결과 함께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²³⁾

셋째, 인성과 도덕성이 함양된다.²⁴⁾ 생각하는 것은 혼자만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알고 싶다면 여러 가지 책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전제되었지만 이를 누군가와 대화를 통해 나누는 것도 아주 좋은 공부다. 어린이 철학교육은 다양한 자료를 다른 이와 토론하는 것을 지향한다.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타인의 가치, 신념, 심리적 경향 등을 이해하면서 인간을 이해하게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화 되고 인성의 함양도 가능해지며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책임감, 존중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이 자연스럽게 내면화 된다.

넷째, 관찰을 통해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을 기른다. 철학교육은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하고 숙고하다보면 예전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한 가지 사물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훈련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세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하게 되고 따라서 사고의 폭도 넓어지는 것이다.

21) 이성진 외, 『교육심리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7. 90쪽 참조

22) 신원우, “초등학교 철학 교육의 한 모형연구”, 『철학교육연구』 제 15권 28호, 1999, 52쪽 참조

23) 창의적 사고란 한 사물이나 상황을 볼 때 새롭게, 다각적으로 볼 줄 알며,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나 유용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사고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능력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물에 대해 관찰, 내면과의 대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의 과정을 수없이 훈련했을 때 생길 수 있다.

24) 이성진, 앞의 책, 53쪽 참조

Ⅲ.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론

1. 철학교육의 방법들

철학교육은 ‘생각함’을 교육하는 일이며,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함’이 가능한 것이며 생각하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주된 방법은 관찰과 대화, 토론이 될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그들의 철학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수 십 년을 책과 씨름하기 이전에 사물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대상을 심도깊게 관찰하고, 누군가(스승이든 제자든)와 대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쳤을 것이다. 그 중에서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는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날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차용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 방법론이다.

1) 소크라테스의 대화법

소크라테스는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을 대화법(Dialektik) 또는 산파술(maietius)²⁵⁾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주제와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주로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의 궁극적인 관심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에 있었기"²⁶⁾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는 상식적이고 평범한 대화에서 시작해 많은 질문을 해가며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의 말을 기억해두었다가 스스로 오류를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답변이 불충분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게 하였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 중 특이한 점은 대화의 마지막에 결론이나 답변을 내리지 않고 대화가 끝난다는 것

25) 박해용,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두리미디어, 2002, 34~39쪽 참조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은 산모가 스스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처럼 참된 진리도 찾는 사람이 진통을 겪으면서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26) 위의 책, 36쪽 소크라테스는 “나는 누구인가”에 끊임없이 물음을 던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나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나에 대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태도, 거것을 거부하는 용기를 강조하였다.

이다. 즉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것으로 대화가 끝난다. 그것은 상대방이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이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예를 들어보자. 플라톤의 『국가』의 일부이다.²⁷⁾

소크라테스 : 자, 트라시마코스 선생!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답해주시오. 선생은 완벽한 올바르지 못함²⁸⁾이 완벽한 올바름보다 더 이득이 된다고 주장하시오?

트라시마코스²⁹⁾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런데 올바름은 훌륭한 것이고, 올바르지 못함은 나쁜 것이 아닌가요?

트라시마코스 : 아니죠. 저는 올바름을 ‘고상한 순진성’으로, 올바르지 못함을 ‘훌륭한 판단’으로 부르겠습니다.

소크라테스 : 아니, 트라시마코스 선생! 선생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분별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트라시마코스 : 그렇습니다. 실로 올바르지 못함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국가와 부족을 자신들의 지배아래 둘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소크라테스 : 선생은 혹시 올바르지 못함을 훌륭함과 지혜의 부류로 취급하고, 올바름을 그 반대 부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요?

트라시마코스 : 그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 보시오. 이걸 한층 더 다루기 어려운 경우여서, 이젠 더 이상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소. 만약 선생이 올바르지 못함을 이익이 있는 것으로 여길지라도, 이것이 실은 나쁜 것이고 창피한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 선생은 올바르지 못함을 감히 훌륭함과 지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소.

트라시마코스 : 정확하게 알아맞히셨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분별있는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닮았지만, 올바른 사람은 그렇지 않겠네요.

27) 플라톤, 『국가』, 송재범 역, 풀빛, 2005. 29~31쪽 참조

『국가』는 총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플라톤 전집의 약 18%를 차지할 정도로 분량이 방대하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정치 사상, 교육학, 예술론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28) 『국가』에서 논의의 초점은 ‘올바름’, 즉 ‘정의’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란, 국가를 구성하는 세 계층사이의 관계, 개인의 혼에 있는 세 요소 사이의 관계가 조화를 이룬 상태, 즉 ‘올바른 상태(저마다 알맞은 자리에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29) 흑해 입구의 중요 교역 도시인 칼케돈 출신의 이름난 소피스트다. 활동 기간은 대략 기원전 430년~400년이며, 소크라테스보다는 약 열 살쯤 연하로 보인다. 『국가』 제 1권이 흔히 그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제1권에서 그가 소크라테스의 주요 대화 상대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트라시마코스 : 당연하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다른 모든 지식과 무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봅시다.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전문가의 말이나 행동보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더 뛰어나다고 여기지는 않겠지요? 같은 문제를 처리하는데 전문가끼리 선택을 달리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트라시마코스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러나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겠소? 이 사람은 전문가에 대해서건,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건 똑같이 자기가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소?

트라시마코스 : 아마 그럴 겁니다.

소크라테스 : 그런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겠지요?

트라시마코스 : 그렇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뛰어나다고 여기지 않으나,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뛰어난을 드러내고자 할 것이요.

트라시마코스 : 그럴 것 같군요.

소크라테스 : 그러나 못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신이 더 뛰어나다고 할 것이요.

트라시마코스 : 그럴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다면 트라시마코스 선생, 우리가 지금 문제삼고 있는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지요?

트라시마코스 :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 그렇지만 적어도 올바른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뛰어난 척 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같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겠지요?

트라시마코스 : 아마도 그렇겠지요.

소크라테스 :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은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을 닮았으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못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을 닮았겠네요?

트라시마코스 : 그럴것 같군요.

소크라테스 : 따라서 올바른 사람은 훌륭하고 지혜로우나, 올바르지 못한 사람은 무지하고 못되다는 것이 이제 판명된 셈이요.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대화의 상대방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 답을 찾아내게 하는 산파술이다. 소크라테스는 주로 3단계로 대화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잘 모르는 척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두번째는 상대방에게서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이 가진 결함을 질문을 통해서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장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상대방은 주로 ‘예나 아니오’로 대답을 하였고, 그 대답을 통해서 자기 주장의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논리적인 비약과, 그것의 반례들을 끄집어 내는 과정을 통해 처음과는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통해서 이루어 지게 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세번째는 그것에 대한 답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결론에 다다른 것이다. 새로운 결론은 또다른 질문을 낳는다. 이는 어린이를 위한 훌륭한 철학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철학은 물음을 던지는데서 시작해서 그 물음의 답을 스스로 얻고자 함이 목적이며 그 과정을 통해 진리에 도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물음을 통해 더 이상 오류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생각하는 습관이야말로 가장 논리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의 여지도 가능하다. 모든 문제를 대화와 토론의 거친다면 ‘생각함’은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대화를 이끌어가는 매개와 목적, 대상, 기술이 문제가 된다. 대화를 이끌어가고자 할 때는 무엇으로 대화를 할 것인가 하는 재료가 있어야 할 것이며, 그 주제(내용)가 대상과 맞는가, 무엇을 위해 대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이끌어갈 교사가 필요하며 대화의 주제 및 내용이 있어야 하며 대화의 목적이 건전해야 하며, 대화를 잘 이끌어나가는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³⁰⁾ 그래서 철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대화의 내용이 될 만한 텍스트를 고를 수 있어야 하며,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기술 또한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목적인 바대로 철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대상에 맞는 텍스트와 목표, 기술 필요하다.

어린이 철학교육에 있어 대상에 맞는 텍스트라 함은 어린이들의 일상에 맞는 내용의 동화나 그림책, 만화가 적절할 것이며, 일상 그 자체도 좋은 철학교육의 텍스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린이 철학교육의 상위 목표에 따른 하위 목표가

30) 윤석우, “플라톤의 파이돈을 통한 철학교육 모형 연구”, 『철학교육연구』 제14권 제 27호, 1998년, 120 쪽 참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아동의 지적 수준과, 심리적 상황을 고려한 목표 설정이어야 한다. 또한 ‘기술’이라 함은 수업의 기술을 의미한다. 간단하게나마 여기서 어린이 교육에 맞는 수업의 기술을 설명하자면 ① 교사는 아동과 친밀감을 유지하며 ② 아동과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전개하는 발문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③ 수업 전 상황에서의 목표를 일관되게 적용할 줄 알며 ④ 학습자에게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분위기 조성을 즐겁게 할 줄 아는 기술을 의미한다.³¹⁾

2)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시작점이라 할 것은 ‘회의(懷疑)’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얻어지는 확신은 관습이나 사회적 산물, 일시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으며, 감각적인 인식은 확실하지가 않았다. 꿈과 현실의 구분은 감각적인 인식만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수학적 진리 나아가, 이 세계 전체를 신이 아닌 악마가 못된 장난을 쳐서 속임수로 가장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체를 속이는 현상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³²⁾ 그는 학문의 확실한 기초를 세우기 위해 종교와 도덕을 제외한 일단 모든 것을 의심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학문에서 다 제외하고,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어떤 것을 바탕으로 진리에 도달하고자 했다. 이와 같이 어떤 기본 명제를 바탕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해가는 철학적 사유 방법을 ‘방법적 회의’라 한다.

“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야말로 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회의론자들의 어떤 기발한 명제에도 그것을 뒤집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는 그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칙으로서 받아들인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³³⁾

그는 밑바닥, 끝까지 회의를 계속했으나 그러한 회의의 끝에서 그는 두 가지의

31) 김창길 외, 『교육학 개론』, 형설출판사, 2006, 274~284쪽 참조

32)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IVP, 2002, 39~42쪽 참조

33)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문예출판사, 2006, 289~290쪽 참조

사실만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생각을 한다’라는 사실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나’가 그것이다.

데카르트가 살았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론에 빠져들었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시대적 위기의 원인을 이성의 잘못된 사용에 돌리고 이성을 소유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데카르트의 방법론이란 이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을 말한다. 그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4)

첫째, 확실히 참이라고 인식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 것, 즉 속단과 편견을 피하고 명석판명하게 내 정신에 나타난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리지 말 것.

둘째, 검토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상을 작은 부분으로 나눌 것.

셋째, 내 생각들을 순서에 따라 이끌어 나갈 것, 즉 쉬운 대상에서 복잡한 것의 순서로 인식할 것

넷째, 아무것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확신할 정도로 완벽하게 열거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데카르트는 당시 학문 중 기하학과 대수학만을 신뢰했고 어떤 지식체계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문이 수학적 형태를 띠어야 하며 수학적 지식만큼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데카르트는 먼저 수학을 자연과학에 적용하는 것을 방해해온 장애물을 생각했는데 이를 중세에 팽배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견해에서 찾았다. 그 견해에 따르면 수학과 그 외의 학문들이 다루는 대상들 간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유적으로 다른 대상들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35)

데카르트적 사고혁명은 이런 생각을 뒤집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는 수학과 개별학문들 간의 차이는 단지 단순, 복잡의 차이에 불과하고 따라서 모든 학문은 하나라고 말한다. 즉 태양의 빛으로 나타나는 대상이 천차만별이라 해도 태양 자체는 하나인 것처럼 인식대상이 아무리 달라지더라도 그것을 인식하는 정신의 방법적 사유는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이다. 36)

또한 정신지도규칙에서 37) 데카르트는 자연과학적 탐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가설 연역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관찰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이를 기

34) 위의 책, 310쪽

35)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이야기』, 서울: IVP, 2002, 30~44쪽 참조

36) 위의 책, 37쪽

37) 데카르트는 그의 저서 『방법서설』과 『정신지도규칙』에서 추론의 네 가지 규칙을 설명하였다.

반으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의 정당성을 계속된 관찰을 통해 검증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진리를 찾아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찰, 자료 조사, 가설 세우기, 검증하기의 과정에서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과학이 사실이고 진리이라고 하는 세상이지만 그마저도 오류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그 무엇인 정말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진리를 쫓는 마음, 본질에 가깝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순수한 ‘철학함’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함’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즘 어린이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 이유는 생각함의 이유를 모르겠고, 생각함이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기가 싫어서 재미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생각함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일까. 논자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생각함은 재미있다. 무언가를 보고 생각하고 알아내는 일은 즐거운 일이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요즘의 교육은 생각함의 여유를 주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는다. 공장에서 생산해낸 상품을 사서 사용하기만 해도 살 수 있듯이 지식도 상품화 되어서 판매되고 있고,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은 이 세상 아무데도 없다. 즉 생각함의 이유가 없으며 스스로 만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생각함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를 관찰하고, 스스로 그 사물 자체를 파악해보고, 무언가를 알게 하는 교육이 자연스럽게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관찰교육이 중요하고, 체험해보는 교육이 철학교육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도식을 그려보자면 ‘관찰- 질문- 회의- 대화와 토론- 판단- 적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철학함’은 가능할 것이다.

3) 철학적 탐구공동체

어린이 철학 수업은 하나의 사태에 물음을 던지고 스스로 물음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물음의 답을 찾아나가는 일은 회의(懷疑)에서 시작해서 대화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음을 던지고 회의와 대화만이 능사는 아니다. 회의는 혼자서도 가능한 것이고, 대화는 상대가 있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물음의 답에 도달하려면 대화 상대의 지적 수준과 사고의 수준이 유능해야만 한다.

하지만 철학교육은 철학자가 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만을 통한 철학교육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철학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인위적인 설정보다는 동료와 교사로 구성된 자연스런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탐구 과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과정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에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탐구공동체(Community of Inquiry) 교육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인 피어스와 듀이가 강조하였다. 듀이는 교실이 탐구하는 공동체, 즉 탐구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탐구공동체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⁸⁾ 실용주의 교육방법의 특징을 '프로젝트 방법'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용주의자들에 의하면 어린이는 본래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래적인 학습자라고 한다. 즉 어린이는 탐구와 사고를 자극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어린이의 탐구적 정신을 배양시켜야 하며 특히 과학, 문학, 역사 등과 같은 교과목에 호기심을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결국 실용주의자들의 요점은 학생은 호기심을 느낀 것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교사는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교과목에 대한 호기심을 어린이에게 자극시켜야

38) 이주한,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창지사, 2007. 302~304쪽 참조

실용주의는 철학사상사에서 미국이 공헌한 부분이다. 피어스(Charles S. Peirce)와 듀이(J. Dewey)에 의해 발전했다. 실용주의자들은 마음을 수동적이기보다는 활동적이고 탐구적인 것으로 본다. 실용주의는 전통철학들이 궁극성, 절대성, 영원한 본질 등을 연구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평했다. 실용주의자들은 실험적 과학, 변화하는 세계와 그 문제점들을 그리고 모든 실재를 내포하며 또 과학에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경계선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실용주의자들은 이성에 의한 '지성적 방법'만이 문제의 발견과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실용주의의 교육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그들의 사회적, 자연적 환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학습상황을 조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다는 데 있다.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아동철학 교육운동을 주도한 리프먼은 탐구공동체 교육을 철학교육의 한 방법론으로 활용해 왔다.³⁹⁾

탐구공동체는 주로 토론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이다.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할 자료를 선택하거나 질문지를 만들어야 하며 토론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로써 스스로 생각하기와 의욕적으로 탐구하기, 공동체 안에서 주체로 서기가 가능하다.⁴⁰⁾ 또한 학습자는 토론활동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해결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탐구공동체의 ‘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을 통해 타인존중과 협동심 등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탐구공동체 수업이 민주시민의 자질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다.

모든 공동체가 그렇듯이 탐구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타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한다. 교사는 학생들을 공평한(Fair) 애정(Affection)과 관심(Interest)과 존중(Respect)의 태도 즉 ‘페어(FAIR)’의 태도를 갖고 대한다.⁴¹⁾ 그렇게 하면 학생들은 각자 자긍심을 가질 것이며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더욱 더 분별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탐구공동체 규칙에 따라 각 교과에서 탐구공동체수업을 하게 되면 교사위주의 강의식 수업에서 기대할 수 없는 인성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⁴²⁾

39) 리프먼은 인간이 역사 문화적 구체적 존재이며 구체적 판단은 그러한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대화의 출발점을 구체성을 갖는 이야기(Narratives)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관한 이야기이며 삶의 진솔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실존적 존재를 만나며 그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고민한다. 신원우,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한 모형연구”, 『철학교육연구』 제 15권 28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9, 64~65쪽 참조

40) 이성진 외, 『교육 심리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7. 209~212 참조

인본주의 심리학자인 해마체크(D.E.Hamach)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수·학습에서의 인본주의적 접근은 학생이 자신의 전체를 수업에 참여시킨다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데 있다. 생각하고 느끼는 머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들 자신의 고유한 태도나 학습 방법이 있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은 서로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 할 뿐만 아니라, 결과도 여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41) 박진환, “철학적 탐구공동체 방법을 통한 인격교육”, 『국민윤리연구』, 한국윤리학회, 2006, 14쪽 참조

42) 남국용권, 『교육의 역사 철학적 기초』, 학문사, 1995, 291쪽 참조

인본주의자들에게 있어 주요한 교육목표는 전인적 발달에 있다. 그들은 인간존재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형성해나기 위해서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학습 목표와 주제가 제시되고 그에 따른 읽기 자료,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토론해볼 수 있도록 일련의 탐구질문이나 연구문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단원 학습의 목표가 제시되고, 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자료의 구성, 질문지와 활동 자료로 교재가 구성되었으나 탐구 질문이 빈약하고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수업에 있어 탐구 질문은 수업의 질을 담보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내용과 수준이 사고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문을 잘하는 능력도 교사에게는 필요한 능력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질문을 잘 하는 것일까. 특히 철학교육을 하는 교사에게는 근본에 이르게 하는 철학적 질문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왕따’ 문제에 대해 토론 학습을 할 경우 “‘왕따’의 뜻이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은 의미 파악에 목적을 둔 단순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언가 의미있고, 생각할 꺼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왕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왕따 현상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왕따를 당하는 사람과 왕따를 하는 사람의 속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왕따는 사라질 수 없는 걸까요?” 등과 같은 물음이 효과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교과서의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강의식 수업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그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내면화하는 데에는 토론식 수업이 더 적합하다. 따라서 강의식 수업은 교과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에만 한정하고, 나머지 시간을 가능하면 토론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의 질문들이 교사나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교사가 직접 또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교과서의 주제와 관련된 소재를 찾아 그것을 바탕으로 탐구 질문을 구성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언론에 보도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탐구공동체 수업을 하면 효과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철학적 탐구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끌어 가느냐의 문제다. ‘철학 탐구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① 탐구 주제 및 자료의 선정 ② 학습 목표

다는 독특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인간주의는 사람을 돕고, 이해하고 또한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은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즉,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교환하는 능력 등이다. 따라서 탐구공동체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감정과 의견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발달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43) 권희정, “철학적으로 토론한다는 것”, 『배워서 남주자』, 해오름, 2001, 47쪽 참조

설정 ③ 탐구지 구성 ④ 학습 결과물 공유 ⑤ 학습 평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탐구 주제 및 자료의 선정은 주로 교사가 선정하나 때로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해오는 경우도 필요하다. 스스로 준비하는 학습이 문제를 발견하고, 근원적 지식 탐구에 몰입하게 하며, 앞으로 인한 성취감, 문제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통한 깨달음에 이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⁴⁴⁾ 교사가 주제를 설정하고 자료를 선정할 때는 학습자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때 흥미를 끌 수 있고, 자료와 주제의 난이도가 학습자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듀이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 선정의 원리로서 그 첫 번째는 학습 자료를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그것과 관련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사고를 유발하고 경험의 재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험이나 능력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이다. 두 번째는 학습자료를 양적으로 더 풍부하게 하고, 질적으로 더 심화하는 방식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하나의 경험이 타경험 그리고 후속 경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는 방식으로 교육내용을 조직해야 한다는 원리이다.⁴⁵⁾ 그의 주장은 학습자를 고려하지 못한 전통방식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⁴⁶⁾,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습자를 고려한 주제 선정, 학습 목표 제시, 자료 선정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즉 그의 주장을 의미있게 받아들인다면 어린이 철학교육의 적절한 주제는 어린이들의 관심사, 실생활, 고민, 흥미도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에게 흥미로운 주제는 ‘인터넷 게임 어떻게 볼 것인가’, ‘왕따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걸까’, ‘친구와의 우정은 영원할까’와 같은 주제들이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자료를 준비해 온 경우는 공동체 안에서 자료를 공유하고, 그 가운데서 적절한 자료를 선별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학습 목표 설정은 수업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도

44) 김판수 외, 『공부의 절대 시기-자기주도적 학습법』, 교육과학사, 2007, 107~108쪽 참조

45) 이주한,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창지사, 2007, 307~308쪽 참조

46) 전통적 교육의 방식은 주로 교사가 일방적으로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학습자의 흥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교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교육을 행함으로써 아동을 학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무기력해지며, 산만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왕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본다’가 학습의 목표라면 ‘생각해본다’의 의미가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해보기’를 수행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탐구지는 쉽게 말하면 학습 내용을 담은 질문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질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이다. 질문지는 교사가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작성할 경우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장점이 있고, 질문의 내용이 단답식이거나 학습의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질문지가 작성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고려하여 교사는 장단점을 보완한 복합식 패턴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탐구공동체’의 질문지는 더욱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이 순차적이면서도 논리적 추론과 창의적 대안이 가능한 질문지로 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인 찾기, 추측하기, 대안 찾기, 비교 분석하기, 근원 찾기 등의 질문이 탐구지에 포함되는 게 바람직하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철학적인 물음 던지는 데 그 목표가 있다.

탐구지를 통한 토론이 끝나면 마무리 활동을 한다. 마무리 활동은 주로 글쓰기, 그림으로 표현하기, 역할극, 판토마임, 체험 활동 등 다양하다. 이는 학습의 내용을 최종 정리하면서 배우고 익힌 학습의 내용을 좀 더 내면화하기 위한 방법이다.

학습의 종결은 평가다. 평가를 통해 학습의 흥미도, 습득한 지식의 정도, 사고의 전환 등을 가늠할 수 있고, 향후 학습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어린이철학교육을 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와 데카르트로부터 그 방법을 착안, 실제 철학교육의 구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공동체’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학을 하기 위해서 관찰과 실험, 가설, 검증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듯이 철학을 하기 위해서 관찰과, 토론, 생각함의 과정을 꾸준히 거쳐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철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뚜렷이 말할 수 없듯이 철학함의 방법도 딱히 일정한 방법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와 회의의 방법을 알아보았다. 다만 이 방법이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교육 할 것인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이

다.

2. 어린이 철학교육의 텍스트

어린이 철학교육의 교재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 모든 교육은 학습자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 철학교육의 교재를 구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① 철학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을 담보하여야 하며, ②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내용이어야 하며,⁴⁷⁾ ③ 텍스트의 형식과 내용이 학습자에게 흥미로운 텍스트여야 한다.⁴⁸⁾ 철학교육이 초등학교 교과서의 정식 과목이 없는 한계를 극복하여 어린이 철학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기존 과목 고유의 성격을 살리되,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고, 철학적 물음들을 보완하여 교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1) 교과서를 활용한 어린이 철학교육

초등학교 교과서 중에서 어린이 철학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과목은 도덕과와 사회과 과목이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목표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한국의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는 데 필요한 건전한 도덕성과 인격의 기초를 기르고자 함”이다.⁴⁹⁾ 또한 사회과의 교육 목표는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지식 습득과 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육성하고자 함”이다.⁵⁰⁾ 초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요약하면 주로 인간 존중, 생활 규범, 인간과 환경의 문제, 생명 존중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⁵¹⁾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도덕과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보았다.

47) 좌경옥, “철학교육의 도덕적 효과”, 『도덕교육연구 제7권』, 도덕교육연구회, 1995, 3쪽 참조

48) 남국용권, 『교육의 역사 철학적 기초』, 학문사, 1995, 290쪽 참조

49)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5, 187쪽

50) 위의 책, 2쪽

51) 위의 책, 183~184쪽

(1) 도덕과 교과서 내용 분석

① 내용 체계표⁵²⁾

| 구분 | 주요 가치 덕목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개인 생활 | 생명 존중 성실 정직 자주 절제 | · 청결 위생 · 정리 정돈 · 맡은 일에 책임 다하기 ·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하기 | · 바른 몸가짐 · 스스로 생각하 고 실천하기 · 시간을 아끼고 지키기 | · 정직한 생활 · 절제하는 생활 | ·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 · 생명을 소중 히 다루기 |
| 가정 이웃 학교 생활 | 경애 효도 예절 협동 애교 애향 | · 효도와 우애 · 인사 언어 예절 ·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기 | · 친절과 양보 · 친족간의 예절 · 친구 사이의 · 믿음과 우정 | · 서로 아끼고 공경하는 마음 · 이웃과 다정하 게 지내기 | · 사랑과 관용 의 자세 · 학교 고장의 발전과 협동 |
| 사회 생활 | 준법 타인 배려 환경보호 정의 공동체 의식 | · 거리 교통 질서 지키기 · 환경을 보호 하기 | · 공공장소에서 예절과 질서 · 공정한 생활 태도 | · 타인의 권익 존중 · 공익 추구의 생활 · 민주적 절차 준수 | · 법과 규칙을 잘 지키기 · 타인에 대한 배려 와 봉사 · 자연 보전과 애호 |
| 국가 민족 생활 | 국가애 민족애 안보 의식 평화통일 인류애 | · 나라 사랑 ·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 식 | · 민족문화유산 애호 ·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 국가 발전에의 협력 · 평화통일의 당위 성과 방법 · 올바른 국제문화 교류 | · 통일국가의 미래 상과 민족통일 의지 · 해외동포들에 대한 이해와 사랑 · 세계평화와 인류 공영 |

② 교재 구성의 특성

도덕과 교과서 구성의 특성은 글 자료와 그림 자료, 이에 따른 질문지가 첨부되고, 교사와 학생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다. 글 자료의 특징은 창작된 동화, 편지글, 기사, 일기글 등 초등학교 학생들이 익숙한 글의 장르와 내용을 싣고 있으며, 그림 자료는 만화, 삽화, 사진

52) 위의 책, 184쪽

등 시각자료를 실어 내용 이해를 돕고 있으며, 토론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③ 도덕과와 철학교육의 연관성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내용의 난이도는 초등학교 학생의 지적 수준, 친밀한 상황, 익숙한 장르의 텍스트로 구성되고 있지만 그 주제는 ‘자주’, ‘정직’, ‘준법’, ‘공동체’, ‘환경’, ‘생명’,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인간이 살면서 당면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이며 갈등의 소재들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인류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풀어가야 할 근본적인 철학적 물음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도덕과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 자체가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다만 교재의 내용과 구성이 초등학교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야 하며 초등학교 시기는 시각자료에 더욱 흥미를 끄는 시기이기에 생동감 있는 시각자료를 보완해야 한다.

(2) 사회과 교과서 내용 분석

① 내용 체계표⁵³⁾

| | 3학년 | 4학년 | 5학년 | 6학년 |
|--------|--|---------------------------|--|----------------------------------|
| 인간과 공간 | *고장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과의 관계 *지도와 고장의 관찰 *고장 사람들의 생활모습 *지역중심지로서의 시장 *교통의 중심지 | *우리 지역의 모습 *지역의 지도 그리기 | *우리 국토의 모습 *환경의 이용과 보존 *도시와 촌락지역의 생활 | *우리 겨레의 삶의 터전 *우리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 |
| 인간과 시간 | *고장 생활의 변천 *전통의 계승 | *옛 도읍지와 나라들 | *문화 전통의 계승 | *민족국가의 성장 *민족 문화의 발달 |

53)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국어, 도덕, 사회』,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5, 246~248쪽

| | | | | |
|--------|---|---|--------------------------------|---|
| | | *박물관과 문화재 | | *근대 사회로 가는 길 *현대의 한국 |
| 인간과 사회 | *시장과 물자 이동 *고장의 여러 기관과 단체 *고장 사람들의 노력 | *지역의 자원과 생산 활동 *물자 유통과 상호 의존 *지방 자치와 주민 생활 *지역 사회의 문제와 해결 *우리 지역의 앞날 *다양해지는 가정 생활 *취미와 여가 생활 *가정의 살림살이 |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정보화 시대의 산업 활동 |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지구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 |

② 교재 구성의 특성

사회과 교과서의 교재 구성은 도덕과와 거의 유사하며 다른 점이 있다면 사회과 탐구 교재가 보충교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역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 지역별로 교재의 내용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사항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재 구성이 글과 그림, 사진 자료가 주 자료가 되고 있으며 글의 내용은 창작된 동화 내용과 글의 내용 이해를 돕는 삽화나 그래픽 자료, 사진 자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자료가 많이 실린 이유는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시각 자료를 많이 싣기도 하고, 사회 현상을 다루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는 실제 장면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다.

③ 사회과와 철학교육의 연관성

사회과에서 배우는 내용 체계표를 살펴보면 전체 내용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 인간과 시간의 관계,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지식과 현상을 알게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과 공간, 인간과 시간, 인간과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문제들과 현상을 인식하고, 그에 따르는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과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가르치고자 함이 사회과

과목이 목표라면 이 또한 철학교육의 목표와 유사한 점이 많다.

철학교육이 인간에 대해, 세계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관계를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로의 나아감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과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 목표도 거의 유사하다는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철학 과목이 초등학교 시기에는 배우지 않고 있다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볼 때 유사한 과목에 통합해 가르치는 것은 과목간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전체를 하나로 통합해 보는 안목과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도덕과 과목과 사회과 과목을 활용한 철학교육이 필요하다.

2) 매체를 활용한 철학교육

(1)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교육

그림책은 어린이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다. 어린이들은 시각적인 것에 시선이 머문다. 그림책에서는 그림이 곧 언어이다. 어린이들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고 어른들이 발견하지 못한 사물의 모양, 표정, 숨겨진 의미까지도 직관적으로 알아낸다. 이는 아동의 발달 단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상력이 최고조로 발달하는 5~7세의 아동에서 주로 발견되는 현상”⁵⁴⁾이다. 그림책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며 가장 늦게까지 보게 되는 책이다. 일본의 그림책 전문가인 마쓰이 다다시는 그림책을 보는 연령대를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림책은 아동에게 독서에 몰입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과 상징적인 의미와 주제가 심오한 경우도 많다.⁵⁵⁾ 그림책 작가로 아이들의 심리와 갈등의 문제를 가장 잘 묘사하는 작가는 존 버닝⁵⁶⁾, 앤서니 브라운⁵⁷⁾, 모리스 샌닥⁵⁸⁾, 레오 리오니⁵⁹⁾, 토미 웅게

54) 이상금,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사계절, 1998, 50쪽. 참조

55) 마쓰이 다다시, 『어린이와 그림책』, 이상금 역, 샘터, 2007. 52~53쪽. 참조

56) 존 버닝햄은 1936년 영국에서 출생해 현재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림책 작가이다. 영국에서 주는 그림책의 최고상인 케이크 그린 어웨이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훌륭한 작가이다. 존 버닝햄의 그림은 솔직하고 순박하다. 그의 그림책 속에 나오는 인간과 동물들의 모습은 모두 어린아이가 마구 그려 놓은 듯하다. 그의 그림은 끊긴 듯하면서도 연결되어 있는 짧은 선으로 되어 있어서 막히거나 딱딱한 느낌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유 분방한 느낌을 준다. 그리고 그의 선과 채색은 도회적인 세련된 느낌보다는 우리가 꿈속에서 어렵듯하게 보았을 것 같은 친근하면서도 자유로운 인상을 준다. 이러한 존 버닝햄의 그림

리60). 에즈라 잭 키즈61)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

책이 지닌 매력은 우리가 그의 그림책을 반복해서 볼 때마다 그 속에서 또 다른 재미를 느끼게 하는 원동력이다.

57) 앤서니 브라운은 1946년 9월 11일 영국 요크셔의 셰필드에서 태어났다. 예술에 관심이 많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1963년 리즈 칼리지 오브 아트에 입학해 미술을 배웠다. 학교를 졸업한 후, 인체나 수술 장면 등을 그리는 메디칼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며, 그의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채물감을 사용한 세밀화 기법을 연마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완숙의 경지에 이른 시점에 그림책 작가로 데뷔한 그가 고민한 부분은 주제의식과 어린이들의 눈높이였다. 그의 작품 세계는 1983년에 발표한 『고릴라』를 기준으로 달라지는데, 어린이의 눈높이보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대표작 『고릴라』, 『터널』, 『돼지책』, 『동물원』 등은 모두 개인적 체험을 소재로 한 책들이다. 『고릴라』는 아버지를 모델로 했고, 『터널』은 자신의 형과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썼다. 이 작품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동시에 현대 가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다. 『고릴라』에서는 일에 바빠 가정에 신경쓰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터널』에서는 갈등 많은 형제 관계의 화해를, 『동물원』에서는 참담할 만큼 부서져버린 가족의 모습을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구성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58) 모리스 샌닥의 책에는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생각과 고민이 살아 숨쉬는 ‘진짜 아이들’이 등장한다. 칼데콧 시상식에서 샌닥은 “어린이의 갈등이나 고통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허식의 세계를 그린 책은 자신의 어릴 때의 경험을 생각해 낼 수 없는 사람들이 꾸며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게 꾸며진 허구의 이야기는 어린이의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작품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강조했다.

모리스 샌닥의 작품으로는 『깊은 밤 부엌에서 (In the Night Kitchen 한글판)』, 『괴물들이 사는 나라』 등이 있다.

59) 레오 리오니는 네덜란드 출생의 그림책 작가이다. 그는 그림책을 통해서 다른 그림책 작가들이 하지 못했던 ‘정신적인 가치’를 구현했다. 어쩌면 지나치게 철학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그의 그림책들은 한결같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나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와 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프레드릭』 속에서 아름답게 펼쳐진다. ‘나는 시인이야’라고 말한 수줍은 쥐 ‘프레드릭’은 레오 리오니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다.

60) 그림책에서는 모든 것이 등장인물로 나올 수 있으며, 어떠한 것이라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어린아이에게 친숙한 것만 주인공이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편견이며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등장한 작가가 바로 토미 웅게러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예쁘거나 귀엽기는커녕 징그럽고 무섭다며 기피한 뱀이나 악어, 낙지, 박쥐와 같은 동물을 그림책의 주인공으로 발탁했다. 또 힘과 무기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강도나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과 같이 악과 부도덕을 상징하는 인물을 과감하게 기용했다. 이것은 그의 취향이 별스러워서 그런 동물을 좋아하거나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그는 기존의 편견들이 만들어 낸 왜곡된 이미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이다. 무엇을 싫어하고 무서웠던 적도 없으면서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보다 더 무서워하고 징그러워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어린이에게 그대로 전염된다.

61) 에즈라 잭 키즈(1916-1983)는 1916년에 뉴욕 브록클린의 빈민가에서 가난한 유태계 폴란드집안이며 식당 급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1947년에 한 잡지사에서 일하게 되면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첫발을 내디뎠다. 1960년에 『우리 개를 찾아주세요!』라는 그림책을 그렸으며, 1962년 자신이 직접 쓰고 그린 『눈 오는 날』을 발표하여 그림책계에 일대 혁명을 일으키며 미국에서 그 해 가장 뛰어난 그림책에 주는 칼데콧 상을 받았다. 흑인 소년을 주인공으로 콜라주기법을 사용한 그림으로 유명하며 일러스트레이션의 주요 재료였던 물감, 색연필 등의 화구에서 탈피하여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로 작품을 구성했으며, 즉 콜라주, 마블링, 신문지, 포장지, 노끈, 상자, 솜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 독특한 그림세계를 이루었고, 그림책으로는 『피터의 의자』, 『휘바람을 불어요』, 『피터의 편지』, 『내친구 루이』, 『눈오는 날』 등이 있다.

용들은 ‘자아’, ‘공동체’, ‘갈등’, ‘아동심리’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그림책 작가들은 문학가라고 하기 보다는 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린이들의 심리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현실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실감나게, 창의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다. 이런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교육은 다른 텍스트에 비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자료가 된다.

(2) 만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만화이다. 만화는 타 예술에 비해 역사가 짧다. 늦게 태어났지만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두루 가지고 있다. 그림의 시각적 표현성과 글의 문자로서 전달성을 갖고 있다. 또한 표현의 무한성, 글과 이미지를 동시에 이용한 전달성, 인쇄술로 인한 복제성, 웹을 통한 배포성 등이 그것이다. 만화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만화는 내용이 저급하고 그림이 자극적이어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많이 한다. 하지만 만화 중에서도 좋은 만화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박시백의 그림세상』⁶²⁾이나 박광수의 『광수생각』⁶³⁾은 시대적 문제를 풍자적으로 다루면서도 재미있게,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을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만화를 어린이들과 함께 보며 생각꺼리를 찾아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정에서 주제에 대한 생각을 깊이있게 정리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신문을 활용한 창의적 수업 시상에서 만화 ‘광수생각’을 활용해 도덕수업을 한 사례가 상을 받기도 하는 등 만화를 활용한 수업의 사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⁶⁴⁾

(3) 신문을 활용한 철학교육

요즘 신문을 활용한 사고력 교육(NIE)⁶⁵⁾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디서나

62) 『박시백의 그림세상』은 한겨레 신문 등에 연재했던 시사만화를 모아 책으로 엮은 것인데 만화 옆에 간단한 용어 설명이나 사회 현상 등의 내용을 곁들여 놓아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만화 속에 담긴 재치있고 숨겨진 속뜻이 유쾌하다.

63) 만화가 박광수씨가 신문에 연재했던 카툰을 묶어 만든 만화집, 유머와 재치, 기발함 속에 심오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화집이다.

64) 대전일보, 2007년 12월 6일자 신문 기사 참조

65) NIE란 'Newspaper In Education'의 약자이며 신문에 나온 기사, 사진, 광고 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학습의 효과를 주고자 하는 신개념의 학습 모형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재이기도 하면서 신문 안에는 수많은 기사와 사진, 광고들이 있다. 이들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 사회를 이해하게 되고 이 시대의 가치대립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견된다.⁶⁶⁾ 예를 들어 “‘왕따’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발규제는 인권침해인가’하는 문제들이 여러 차례 기사화된 문제이다. 이들 문제를 가지고 고학년의 어린이들과 토론해보는 것은 인간 존중, 자아, 자기규제 또는 자기 결정권 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4) 동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동화는 어린이시기에 꼭 읽어야 하는 책이다. 동화는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고, 문학적 감수성을 길러주며, 동화 속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카타르시스 또는 대리만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문학 장르이다. 또한 동화를 읽다보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게 된다. 동화를 읽으면서 어린이들은 억눌리거나 풀리지 않았던 자신의 감정이 정화되기도 하고,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혼자만의 고민은 아니구나 하는데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혹은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동화를 텍스트로 해서 주요 문제를 뽑아내고 그룹 토론을 한다면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며, 다양한 생각과 상황, 등장 인물의 심정과 처지, 인과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추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화 중에서도 철학적 물음을 던져주는 작품들이 꽤 있다. 권정생 선생님의 『하느님의 눈물』⁶⁷⁾은 생명, 자유, 공동체, 순환, 존중감, 다양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동화가 수록된 작품집이다. 이 동화집은 모두 철학적 물음을 던져주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읽고 나서 토론을 해보아도 좋을 작품이다. 또한 요즘은 논술 교육이 붐을 이루면서 철학동화⁶⁸⁾가 꽤 많이 출판

66) 신문에는 다양한 시사와 정보가 모여 있다. 어릴적부터 신문을 꾸준히 본다는 것은 다양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즉, 신문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상황을 알고 판단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이런 신문의 장점을 살려 NIE 교육이 학교교육에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 뿐만 아니라 신문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알고 깨우쳐 간다는 점에서 NIE교육은 학교현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최근 대학입시에서 논술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면서 고교생은 물론 초등학생, 심지어 유치원생까지 논술교실이 마련되고 있다.

67) 권정생, 『하느님의 눈물』, 창작과 비평사, 1992.

되고 있다. 철학적 물음을 담은 동화가 많이 출판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질적으로 검증받은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3)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교육

요즘 초등학생들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박물관이나 유적지, 유명 관광지 등으로 현장학습을 간다. 한 달에 한 번 자연과 만나는 기회를 갖는 건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현장 학습을 또 하나의 지겨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를 해본다. 아마도 현장학습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그리 낯설게 와 닿지 않는다거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현장학습에서의 교수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집단으로 현장학습을 떠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어렵고 학생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자연은 어린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사고력 교재이다. 자연을 만나면서 이 우주안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생명의 소중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주니 생명의 소중함이니 하는 말이 아주 멀게만 느껴지는 대담론이라면 작게 보면 관찰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들은 자연을 접하면서 아주 작은 생명체에도 눈길이 머물게 된다. 그것을 움직임, 색깔, 모양 등을 보며 생명의 신비로움, 다양성을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타자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기초라고 생각한다. 나와 다른 생명체에 대해 경이로움을 갖게 되는데서 타자를 이해하게 되고 공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철학교육이 관계속의 나를 생각하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자연을 접하면서 관찰력을 기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건 좋은 교육과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은 논자가 실제 1년 동안 어린이들과 체험 학습을 다녀온 프로그램⁶⁹⁾의

68) 초등학생들이 읽을 만한 철학 동화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다. 대교출판사에서는 아인슈타인 철학동화 61권을 출판, 자아를 탐구하는 이야기, 사회성을 키워주는 이야기, 진리를 탐구하는 이야기 등 토론 수업을 하기에 적절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바라미디어 출판사에서는 철학 그림책 시리즈를 출판, 그림책을 보는 재미와 주제의 깊이를 더해 구성과 내용 면에서 좋은 호평을 얻고 있다.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는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를 출판, 이 책은 초등학교 5.6학년 어린이들이 읽을 만한 철학동화이다.

69) 2006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월 2회, 휴무제 토요일을 이용하여 도내 3학년~6학년 아동 20여명과 함께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을 때 진행한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제주의 역사를 체험을 통해 알자는 목표를

내용이다.

2006년 신화,역사,생태 체험

| 월 주 제 | 주 | 전반기 | 월 주 제 | 주 | 후반기 |
|-------------|---|--|---------------|---|-----------------------------------|
| 3 신 화 I | 2 | 섬 창조 신화(설문대 신화) 섬은 어떻게 만들어 졌을까? | 9 역사 · 전설 | 2 | 호종단 전설 중국이 우리나라를 넘봐? |
| | 4 | 탐라 건국 신화(삼성 신화) 제주도가 국가라구요? | | 4 | 항몽유적 전설 끝까지 고려를 지켜라! |
| 4 신 화 II | 2 | 용눈이오름(전설과 신화) 용의 전설과 들꽃보기 | 10 종교 · 학문 | 2 | 성과 연대 우리 제주를 지켜라~! |
| | 4 | 영등신화, 칠머리 당굿 바람의 신은 누구인가? | | 4 | 유배지 선비가 남긴 것은? |
| 5 민간신앙 | 2 | 마을 본향당 (와홀,송당) 마을을 지키는 신들이 좌정! | 11 자연 · 역사 | 2 | 꽃향유가 피는 오름 가을을 만나러 가요! |
| | 4 | 칠성당 뺨신은 귀가 있대요. | | 4 | 이재수의 난과 천주교 |
| 6 선사유적 | 2 | 선사 유적지 (집자리) 옛사람들은 어디서 살았나 | 12 역사 · 유적 | 2 | 일본군 진지 일본의 야욕으로 제주가? |
| | 4 | 선사유적 (무덤자리) 옛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 | 4 | 4·3 유적지 사라져 버린 마을 찾아서 |
| 7 자연전설 | 2 | 제주 동쪽마을 전설 제주에도 인어공주가? | 1 방 학 | 2 |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서 |
| | 4 | 제주 서쪽마을 전설 | | 4 | 박물관에는 무엇이 숨어있을 까 |
| 8 방 학 | 2 | 바다에는 무엇이 살까? 바다속 세계도 인간의 세 계와 같을까? | 2 방 학 | 2 | 옛날 사람들은 왜 기록을 했 을까? 기록의 흔적을 찾아 |
| | 4 | 책숲캠프 | | 4 | 우리가 남긴 발자취를 신문으 로! |

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동안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아이들을 자연으로 되
돌려놓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좋은 삶의 공부라는 생각
이 들었다. 아이들은 자연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면서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감흥을 얻는다. 갇힌 공간 안에서 얻는 지식이 체화되기 까

가지고 제주의 역사 현장과 그 주변 자연 환경을 탐방하였고, 교사가 준비한 토론 자료집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자연, 생태에 대한 지식을 알게 함과 동시에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토론하였
다. 그 결과물은 자료집으로 묶어 공유하였다.

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며 아동의 특성상 한계가 있기도 하다. 모든 학습의 목표는 경험하거나 알게 되는 사실을 깊이 있게 내면화하여 삶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에 학습의 효과를 최고로 느끼게 하고 싶다면 실제 체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의 방법이다.

위와 같은 역사 생태 체험 학습을 통해서도 대상⁷⁰⁾과의 심도 깊은 대화가 가능하고, 그 대상에게 충분히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이때 체험학습을 이끄는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전 답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지, 어떤 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교사가 학습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느끼게 할 것인가를 세밀하고 정교하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때만이 체험을 통한 철학 수업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위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것을 기록한 아동의 글을 잠깐 소개하겠다.

< 활동결과물 1 >

자연이 준 선물

제주 신광초등학교 4학년 현진화

다리를 건너보요
한 번 둘러 보아요.
연꽃, 부들
내 마음이 확 달라져요.
냄새를 맡아보요
자연의 냄새를
들어보요
자연의 소리를.
느껴보요
아름다운 자연의 느낌.
자연이 준 아름다운
선물 마음에 담고 와요.

70) 여기서 말하는 대상이란, 자연, 생태 환경, 역사적 사물 등 체험학습에서 아이들이 만나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위의 글은 체험 학습을 다녀 ‘연화지’에 들러서 쉬는 동안에 쓴 시이다. 갇힌 공간을 떠나 자연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느끼는 ‘자연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연꽃과 부들을 보면서 마음이 확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있고, 자연의 냄새와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권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의 주는 선물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시로서의 작품성을 따지기 보다는 자연에서 감흥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철학은 어쩌면 관찰과 감흥에서 시작된다.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물음을 제기하게 된다. 그것이 철학교육의 시작인 셈이다.

< 활동결과물 2 >

남생이못에서 그린 생태지도



송인성(신제주초등학교 5학년)이 그린 생태지도



송인준(신제주 초등학교 3학년)이 그린 생태지도

학생들은 생태 체험학습을 하면서 직접 관찰을 통해 사물을 이해하고 체화하는 거였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주변에 대한 관심을 저절로 갖게 되었다. 주변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으로부터 생각하는 힘은 길러지는 것이며 생명에 대한 감수성도 함께 길러진다. 이런 과정이 없이 문자로만 자연을 접한다면 아이들은 사실을 사실로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기억할 수밖에 없다. 철학교육은 어려운 책을 읽으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주변에 대한 관심과 관찰,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한다.

IV. 어린이 철학교육의 구체적 모형 : ‘자유’ 문제를 중심으로

1.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의 한 모형

1) 어린이 철학교육에서 ‘자유’의 문제

우리나라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개인의 자유에 대한 것은 크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정신의 자유로 분류된다.⁷¹⁾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미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자유를 보장해줌으로써 인간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자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당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회 문화의 배경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다소 억압하는 분위기였다. 동양의 고유 철학 사상에서는 사실 이러한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의 권력으로 통제하거나, 사회질서가 개인의 기본권에 우선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동성동본을 금지하는 유교사상이라든지, 개인의 독주보다는 만민의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한 대동사상이라든지⁷²⁾. 순자는 예(禮)의 의미를, 인간의 질서생활을 외적으로 규제하는 규범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⁷³⁾

인간에게 있어 ‘자유’의 문제는 삶과 분리되지 않고 늘 따라붙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열망이다. 어쩌면 삶의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를 얻고자, ‘자유롭고자’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까지의 인류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렇듯 ‘자유’의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초등학생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 또한 ‘자유’의 문제다. 글쓰기 지도를 하면서 아이들이 써낸 글을 읽다 보면 ‘자유’와 ‘책임’의 문제를 혼란스러워 하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자유’에의 욕구 표현이 많다. 다음 글은 한 초등학생이 쓴 생활문이다.

71) 헌법 제 10조부터 39조까지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조문은 법제처, www.moleg.go.kr에서 참고

72) 만민의 신분적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 인류의 구현으로 대동(大同)사회를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 형태로 상징하는 사상으로 『禮記』의 예운 편에서 대동사회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73) 순자는 ‘예’를 ‘법(法)’과 결합함으로써 ‘예’에 도덕적인 내용 외에도 법적인 내용을 가지게 하였다. 순자는 제후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 하에서 인정(仁政)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경전(耕戰)정책을 동시에 실행하여 국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순자의 이러한 사상 관점은 실제로 유가의 ‘예치(禮治)’사상에서 법가의 ‘법치(法治)’사상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입장에 있는 것이다. 순자, 『순자』, 김학주 역, 을유문화사, 2001. 참조

제목 : 자유를 달라

나는 하루동일 바쁘다. 학교가 끝나면 영어 학원, 태권도 학원, 보습학원 등 하루에 학원 세 군데를 가야 한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 엄마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매일 나를 다그친다. 나는 엄마의 잔소리가 이젠 듣기 싫고, 하루라도 내 맘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나에겐 정말 자유가 없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늘 이런 기분으로 학원에 가니까 공부도 잘 안된다. 엄마는 나의 이런 마음을 잘 모른다. 정말 속상하다.⁷⁴⁾

(제주 노형초등학교 6학년 김솔민 학생의 글)

위의 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 초등학생들은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시달리고 있고, 그로 인해 학원 공부와 시험 준비에 매달리다보니 개인의 자유가 상실되고 있다고 속상해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에의 욕구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위 글에서도 글을 쓴 학생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듯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면서도 현 편으로는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마저 없다. 이에 초등학교 시기에 이 문제를 명료화 하지 못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거나 풀리지 않으면,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 불안감과 욕구 불만이 지속되면서 무기력증에 빠지면서 삶의 이유나 목표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에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 어린이들과 ‘자유’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며,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유’를 주제로 한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린이 철학교육 방법의 탐구공동체 모형은 일반적으로 주제에 맞는 자료를 제시하고, 학습의 목표 설정, 탐구지 구성, 마무리 활동, 평가의 순으로 구성한다. 예를 들어 학습 지도 계획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74) 이 글을 쓴 학생은 매 주 2회씩 방과후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는 학생이다. 가장 속상했던 일에 대해 글감을 떠올려 글쓰기를 했을 때 제출 된 작품이다.

2) 철학수업을 위한 학습 계획안

본 학습계획안은 철학수업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학습계획안을 임의로 구성해 보았다. 일반적인 독서수업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학습계획안이 수립될 수 있으나 철학수업에서는 질문의 내용이 논리적 요소와 철학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 학습 계획안 예시 >

| | | | | |
|----------|---|---|-----|--|
| 학습목표 | 1. 동화책을 읽고 '자유'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본다. 2. 자유와 방종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본다. 3. 자유에는 왜 책임이 따르는지 생각을 나눈다. | | | |
| 대상학년 | 5.6학년 | | | |
| 단계 | 학습내용 | 교수 - 학습 활동 | 시간 | 유의점 |
| 도입 | 모둠 구성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의 주제를 암시하는 사진이나 그림자료를 함께 보며 오늘의 학습 주제 및 목표를 공유한다. 탐구 학습 모둠을 구성한다. | 5분 | ▶정해진 규칙 또는 의미있는 모둠 구성이어야 한다. |
| 토론주제 정하기 | 1. 흥미롭거나 의미 있는 내용 나누기 2. 토론 순서 정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찾아 나열한다. 나열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주제로 토론 주제로 뽑는다. <p>예) 1. 왜 우리는 자유롭고 싶어할까 2.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왜 자유를 주지 않는 걸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론 순서를 정한다. (주제 설정, 1~2개) | 10분 | ▶공통적으로 합의된 주제를 뽑는 게 좋다. ▶탈락된 의견도 소중한 의견을 강조한다. |
| 토론하기 | 질문지를 바탕으로 토론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1. 주인공은 왜 자꾸만 짜증이 나는 걸까 2.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가 3. 부모님은 왜 자유를 주지 않는 걸까 4. 자유를 주면 주인공의 성적은 좋아질까 5. 잘못된 행동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6. 주인공의 가솔은 합리적인가 7. 부모님과 주인공이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8. 책임이란 무엇일까 9. 자유에는 꼭 책임이 따르는 걸까 10.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 40분 | ▶의견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교사가 가끔씩 개입을 하는 게 좋다. ▶학생들의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교사가 예를 들어준다거나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생각을 자극한다. |

| | | | | |
|--------|-----------------|---|-----|---------------------|
| 마무리 활동 | 토론한 내용을 글로 정리하기 |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한다. | 20분 | 약 400자 정도로 정리하게 한다. |
| 평가하기 | 정리한 글을 발표, 평가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리한 글을 발표한다. ▪ 보충 의견이나 의문점을 질문하거나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 다음 시간 수업 안내를 한다. | 15분 | 발표할 때 잘 듣기를 강조한다. |

수업이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습자가 특정한 수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부적 환경과 외부적 환경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⁷⁵⁾ 어린이 철학 수업에 있어서는 학습자는 어린이가 될 것이며, 매차시마다 특정의 수업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텍스트와 행동, 즉 관찰, 대화와 토론, 실험이라는 수업의 절차가 있다. 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한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수업의 목표 설정

수업목표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표현한 진술문이다. 즉, 수업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 결과, 얻어지는 변화된 지식, 지적 능력, 흥미, 태도의 학생 특성을 표현한 문장으로서 학습성과(learning outcomes)를 담은 문장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진술하여야 한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의 목표를 수립하고 제시해야함도 유의해야 한다.⁷⁶⁾

(2) 도입 또는 출발점 행동 진단⁷⁷⁾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 지난 학습에 대한 이해와 기억, 효과를 확인하며, 본 학습의 목표를 인지하고,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호기

75) 이성진 외, 『교육심리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7. 194~195쪽 참조

76) 위의 책, 197쪽 참조

77) J.R. Decco는 출발점 행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출발점 행동(entering behavior)이란 학생이 특정한 새로운 도작점행동을 습득하기 전에 이미 습득했어야 할 행동을 말한다. 즉 교사가 학생으로 하여금 장차 성취케 하려는 위치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에 있어서의 학생의 현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위의 책, 198쪽 참조

심을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있어서는 도입의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즐겁게 조성하고, 학생들 상호간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의 도입은 주로 게임이나 퀴즈, 본 수업과 관련된 그림이나 사진 제시, 관련 영상물 시청 등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3) 전개 또는 수업의 실제

어린이 철학 수업에 있어 수업의 실제는 자료 탐색, 관찰, 대화와 토론이라고 할 수 있다. 제시한 수업의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숙지와 이해를 돕고, 교사 도는 학생들이 뽑은 토론 주제와 질문지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학습자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는 교사의 노력이 요구되며 학습자간 차이를 인정, 학습자간 격차로 인해 객체화되는 대상이 없도록 잘 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습자간 상호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균형과 조절,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4) 평가

제시된 수업의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가 수업에 있어 마지막 단계이다. 수업의 전과정이 통일적으로 잘 이루어졌는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교사의 준비, 태도는 적절하였는가, 학습자간 의사소통은 원활하였는가 등을 평가하며, 다음에 기대되는 학습의 목표와 정서적 유대감을 서로 교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린이 철학 수업의 절차와 그 학습계획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제 어린이 철학교육의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해 주제 수업을 해본다는 가정 하에 교과서, 매체, 체험학습을 활용해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토론 할 것인가의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래는 위에서 제시한 모형을 제시해야 하나 편의상 ① 자료 구성 ② 주제 및 학습 목표 제시 ③ 탐구지 구성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2. 교과서를 활용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1) 도덕과에서의 ‘자유’의 문제

<예시 자료 1>

(1) 자료 구성

사람은 누구나 손해보는 것보다 이익을 얻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을 찾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선영이네 마을에서는 주차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다투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주차 공간이 없는 집이 많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다른 집 차가 주차할 수 없도록 대문 앞에 물통이나 의자 등을 놓아두는 집이 많아졌습니다.

‘주차 금지’라고 쓴 커다란 낱말을 세워 놓은 집도 있습니다.

선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어느 집 앞에 서려고 하자,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세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운전하는 아주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선영이는 자기 집 차가 올 때까지 대문 앞에 놓여 있는 물통, 의자 등을 보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덕과 5학년 2학기 6단원 ‘나와 우리’ 내용>

(2) 주제 및 학습의 목표

위 내용은 ‘주차 문제’를 통해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소유의 땅에 남의 차를 세우지 못하는 것은 마땅하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생각이라고 한다. 자신의 소유한 땅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타인이 사용하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에 재제를 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역대 철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반화된 논리이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만을 강조했을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지나친 이기주의 현상이 팽배해져 사회 전체가 각박해지기 쉽다는 문제를 낳는다. 이에 어린이의 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해야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되 공동체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⁷⁸⁾ 토론해 보는 활동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78) 주제 및 학습 목표를 제시한 부분에는 _____ 표시를 하였다.

(3) 탐구지 구성

1. 요즘 선영이네 마을에 생긴 문제는 무엇일까?
2. 왜 대문 앞에 물통이나 의자 등을 세우는 걸까?
3. 마을의 ‘주차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까?
4. 우리 집 앞에 남의 차를 세우면 안 될까?
5. 주차 공간이 없는 집은 주차를 어떻게 해야 할까?
6. 본문에서 운전하는 아주머니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7. 위와 같은 일이 지속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

<예시 자료 2>

(1) 자료 구성

하영이네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아니었지만 가족들이 살기에 편했습니다. 특히 집 앞에 빈 터가 있어서 채소를 심고, 꽃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채소를 직접 심어 기르면 무공해 채소를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중략)

하영이네 가족이 빈 터를 일구고 있을 때 아주머니 몇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탁이 있어서요. 이 터가 택의 땅인 것은 잘 알지만 그동안 동네 놀이터로 이용해 왔답니다. 여기에 밭을 일구면 아이들이 마땅히 놀 장소가 없어서요. 아이들이 찾길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의 소유 땅에서 동네 아이들을 계속 놀게 할 수는 없지요.”

(중략)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시청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만들어 주겠다고 하네요. 그러니 내년부터 밭을 일구면 안 될까요?

“지금 답해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가족끼리 의논해서 연락을 드리지요.”

아주머니들이 떠난 뒤, 하영이네 가족은 가족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5학년 2학기 6단원 80~81쪽 내용

(2) 주제 및 학습의 목표

위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인정했을 때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자료이다. 개인 소유의 땅에 공동 놀이터를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그 선택은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개인 소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이미 법으로도 정해졌고, 이를 거부할 의견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만 존중되고, 공동체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거나 고려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앞의 토론 자료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공동의 이익에 저해될 경우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옳은 판단인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3) 탐구지 구성

1. 하영이네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2.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이 상충되는 예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3. 하영이네가 받을 아이들의 놀이터로 제공했을 때와 개인 밭으로 이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
4.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포기해야 할까?
5. ‘공공의 이익’의 개념과 기준이 무엇일까?
6. 여러분이 만약 하영이라면 가족들에게 어떤 의견을 말해야 할까?
7.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8. 개인도 손해보지 않고 공동체도 이익을 함께 나누는 방법은 없을까?

2) 사회과에서의 ‘자유’의 문제

(1) 자료 구성

지난 일요일 소연이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와 신발이 굉장히 많네요.”

소연이는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야 할 지 망설였다.

신발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님께서서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소연이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경제생활의 여러 모습과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 자유와 경쟁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자.

얼마전 소연이네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상점도 많이 생겨, 하나밖에 없던 문방구점이 셋으로 늘어났고, 세탁소도 생겼다. 전에는 빵을 사려면 이웃 동네까지 가야했는데 이제는 제과점이 생겨서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소연이는 상점이 많이 생겨난 까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연이네 동네에 문방구점이 새로 생겨난 까닭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소연이네 동네에 문방구점이 새로 생긴 까닭

- ①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많은 사람이 이사를 왔다. → ②문방구점에 손님이 많아졌다. →
- ③문방구점들이 생겼다. → ④문방구점을 새로 열려는 사람이 나타났다.

▶소연이는 친구들과 함께 경제 생활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 ①자유로운 직업 활동 사진 : 운동 선수, 농부, 판사, 프로그래머
- ②소득의 자유로운 사용 : 소비, 저축
- ③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 : 취업 준비, 취직 시험 등
- ④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 : 많은 음식점, 광고지 등

소연이는 사람들이 저마다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 1단원의 2쪽~7쪽 내용 >

(2) 주제 및 학습 목표

위 내용은 5학년 사회 교과서 1단원의 일부이다. 이야기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면서 이 단원에서의 학습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발문을 하고, 그에 따른 사진 자료를 보여주는 식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 주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회 현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질문과 사진 자료이다. 위의 내용을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내용 안에는 철학적 물음을 담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경제 생활 모습의 변화를 묻는 질문으로 ‘소연이네 동네에 문방구점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와 같은 질문이 있다. 이 질문 외에도 ‘문구점이 많다는 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안될까’, ‘문구점이 많아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일까’, ‘문구점이 생김으로 인해 주변에 더 생길 수 있는 가게는 무엇일까’ 등 다양한 질문이 가능하다. 또한 ‘문구점이 생기는 까닭에 대한 답으로 ‘새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렇다’가 정답인데 이 밖에도 많은 답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① 학교가 들어섰다 ② 문구회사들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들었다 ③ 아동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이사를 왔다 ④ 택지개발이 되어 주택이 많이 건설되었다. 등 많은 대답들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경제생활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① 자유로운 직업 활동이 이뤄지고 ② 소득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지고 ③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④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의 사실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경제 활동 모습을 설명하는 예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위의 교과서 자료를 통해 어린이들과 함께 토론해 볼만한 철학 주제는 ‘자유로운 경쟁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쟁 없이는 살 수 없을까’와 같은 물음이다. 위의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접근하기 위해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철학교육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 좀 더 심도 깊은 물음 던져야 한다. 위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의 질문을 더한다면 이렇다.

(3) 탐구지 구성

< 자유로운 직업 활동을 묻는 질문 >

- Ⓐ 직업은 왜 필요할까.
- Ⓑ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 인기 있는 직업, 인기 없는 직업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 인기 있는 직업만 가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가져야 할까.
- Ⓕ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직업에는 귀천이 없을까.

< 소득을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에 대한 질문 >

- Ⓐ 소득은 왜 차이가 있을까.
- Ⓑ 소득의 정도로 그 사람의 가치를 구분해도 될까.
- Ⓒ 불로소득은 정당한가.
- Ⓓ 바람직하지 않은 소득도 있을까.
- Ⓔ 개인의 소득은 마음대로 소비해도 될까.
- Ⓕ 소득차이로 생겨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 Ⓖ 개인의 소득은 모두 개인의 것일까.

<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자유로운 경쟁에 관한 질문 >

- Ⓐ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 경쟁은 당연한 걸까.
- Ⓑ 모두가 다 같은 직업을 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 Ⓒ 원하는 직업이 한쪽으로 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 Ⓓ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 경쟁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까.

< 소득을 얻기 위한 경쟁에 관한 질문 >

- Ⓐ 소득을 얻기 위해 경쟁은 당연한 걸까.
- Ⓑ 같은 업종이 많아진다는 건 좋은 현상일까 나쁜 현상일까.
- Ⓒ 광고지를 믿을 수 있는가.
- Ⓓ 자유로운 경쟁이 좋기만 한 걸까.
- Ⓔ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4) 교재 재구성

위와 같은 물음들이 추가 될 수 있는 전제 하에 사회과 교과안에 자연스럽게 철학적 물음들을 포함해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자료를 만들어 보았다.

① 자료 구성

지난 일요일 소연이는 부모님을 따라서 신발을 사러 백화점에 갔다.
“와 신발이 굉장히 많네요.”

소연이는 여러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디자인의 신발들 중에서 어떤 것을 사야 할 지 망설였다. 신발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님께서도 부모님이 어렸을 때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소연이는 부모님 말씀을 듣고 경제생활의 여러 모습과 우리 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얼마전 소연이네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상점도 많이 생겨, 하나밖에 없던 문방구점이 셋으로 늘어났고, 세탁소도 생겼다. 전에는 빵을 사려면 이웃 동네까지 가야했는데 이제는 제과점이 생겨서 먼 곳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

소연이는 상점이 많이 생겨난 까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연이네 동네에 문방구점이 새로 생겨난 까닭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② 탐구지 구성 1

1. 소연이네 동네에 문방구점이 갑자기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2. 여러분 동네에 요즘 부쩍 많아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3. 왜 그런 가게들이 많아지고 있을까?
4. 그런 가게들이 많아지면 좋은 점은 무엇일까?

5.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
6. 장사가 잘 되는 가게도 있고 잘 안되는 가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
7. 자유로운 경쟁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까?
8.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없을까?
9. 우리는 자유로운 경쟁이 당연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③ 탐구지 구성 2



1. 위의 사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2. 여러분의 집 현관에도 위와 같은 광고 전단지가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광고 전단지를 붙여놓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이 밖에도 어떤 방법으로 광고를 할까?

4. 광고는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요즘 광고의 기술과 내용이 많이 발달하고 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대한 예를 들어보자.

6. 광고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7.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광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8. 가게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소비자도 손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9. 우리 주변에서 불공정한 거래의 예를 찾아보고, 그것이 왜 불공정한 거래의 예인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 불공정한 거래의 사례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
|-----------------------------------|-------------|
| 문방구 주인이 서로 짜서 공책의 값을 비싸게 받기로 하였다. | |
| | |

| | |
|--|--|
| | |
|--|--|

10. 신문에 나온 광고 중에서 좋은 광고 나쁜 광고를 선별하여 나누고, 그렇게 나누는 기준과 과대광고의 이유와 문제점을 토의하여 발표해보자.

경제생활의 변화와 그에 따른 가정, 동네,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과다 경쟁으로 인한 광고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학습의 목표로 교재를 나름대로 구성해 보았다.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추리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데 수업의 목표를 잡아 구성하였다. 이렇게 사회과 교과서 안에서도 충분히 교재를 재구성해 수업을 한다면 사실적 지식을 알게 함과 동시에 생각의 폭과 깊이가 훨씬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려면 교사가 우선 교과 과정에 대한 이해를 철저히 하고, 통합적인 수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자료 준비와 수업진행을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는 교사로서 고도의 자질을 필요로 하고 다양한 자료 준비를 비롯한 엄청난 노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교사가 힘이 들더라도 학습자인 아동이 수업에 참여하여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고등의 사고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교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다.

3. 매체를 활용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1) 그림책을 활용한 철학교육

그림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양하다. 어린이가 겪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비롯해, 선과 악, 정체성, 존중, 생명, 다름, 공동체, 협동 등 근본적인 철학적 물

음들을 던지고 있다.⁷⁹⁾ 그 중에서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네모 상자 속의 아이들’을 소개하고, 어린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철학수업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료 구성

네모 상자 속의 아이들

토니 모리슨, 슬레이드 모리슨 글
/ 지젤 포터 그림/이상희 옮김

패티와 미키와 리자는 커다란 네모 상자 속에 살아요.
상자 안은 정말 근사해요.
카펫이 깔려 있고, 콩자루 의자까지 있어요.
커튼이 쳐진 창문엔 튼튼한 덧문이 있고요.
그네랑 미끄럼틀에다 멋진 침대까지 있답니다.
하지만 마음대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목직한 자물쇠가 세 개나 채워져 거든요.
부모님들은 수요일 밤마다 이 곳에 오세요.
우와 이게 다 부모님이 가져온 선물예요.

(중략)

끼룩끼룩 마음껏 노래하며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짹짹 뛰어다니는 토끼들,
그리고 값작값작 나무를 갉아대는 비버들 좀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다 하잖아요?
하지만 패티와 미키와 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놀 수가 없어요.
그 전에 패티도 자기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하얀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패티가 좀 소란스럽게 굴었답니다.
도서관에서도 시끄럽게 떠들고, 교실에서 노래도 불렀어요.

(중략)

패티를 걱정하던 선생님들이 어느날 회의를 열었어요.
어떻게 하면 패티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 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고민했어요.
마침내 결정을 내린 선생님들이 패티를 불렀지요.
“패티, 넌 정말 사랑스러운 애야. 가능성도 아주 많아. 그런데 넌 여럿이 함께 지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들은 네 부모님과 의

79) 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림책의 대표적인 작가는 레오 리오니,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햄, 토미
웅게러, 손텐, 에드 영 등이 있다. 이들 작가들은 우정, 모험, 죽음, 자아찾기, 공동체 속의 개인, 영원, 전
체와 부분 등 다양한 철학적 물음들을 작품 속에 표현하고 있다.

논해서 결정을 내렸어. 당분간 네 자유를 빼앗기로 말이야.”

(중략)

“저도 버릇없이 굴고 싶지 않아요. 착한 아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단데요. 하지만 전 제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그러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다.

“패티, 네가 똑똑한 아이라는 걸 절 알아. 넌 아마 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처럼 자기 마음대로 구는 건 자유가 아니야.”

(중략)

마음껏 헤엄치는 돌고래들, 깡충깡충 신나게 뛰어다니는 토끼들, 그리고 짹짹 나무를 갉아대는 비버들 좀 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지만 패티와 미키와 리자는 자기 마음대로 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 아이들한테 자유를 빼앗았나요?

(2) 주제 및 학습 목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규칙을 가르친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행동의 반향이 커지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문제의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모들은 종종 그런 제약의 말과 행동을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도덕성 발달에 있어 유아·아동기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대인 관계에서의 예절, 규칙, 공정함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다.⁸⁰⁾ 실제로 그런 교육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문제는 많다. 어린이가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대처하지 못해 다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주의와 제약, 상과 벌을 가하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 생

80) 콜버그는 오랫동안 아동과 성인의 도덕성을 연구한 끝에 도덕성 발달은 어떤 국가나 문화에 관계없이 일정한 발달단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콜버그는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발전시켜서, 주로 아동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던 것에서 성인에까지 확대하여 도덕성 발달단계를 더 체계화시켰다. 그에 의하면 인간은 크게 3가지의 수준 6가지 단계에 따라서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한다. 즉, 인습 이전 수준(주관화, 상대화 단계), 인습 수준(객체화, 사회화 단계), 인습 이후 수준(일반화, 궁극화 단계) 등이다. 인습 이전 수준의 아동은 도덕적 규칙이나 선악의 개념은 알고 있으나, 이 개념을 행위의 쾌락적 결과, 또는 도덕적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에 관련해서 해석한다. 인습수준의 도덕성에서는 개인의 가정이나 집단이나 국가의 기대를 따르는 것이, 그러한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나 사회의 질서에 동조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며, 질서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정당화하고, 나아가서는 그 질서에 관련된 개인이나 혹은 집단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한다. 인습 이후 수준의 도덕성에서는 도덕적 가치나 원리가, 그 가치를 표방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위와는 관계없이, 또한 자신과 그 집단과의 유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받아들인다.

활을 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제약의 강도는 더욱 세진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치고 그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처벌을 가함으로써 아이들의 자유를 종종 빼앗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규칙에 때로 저항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한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은 시작되고 급기야 의사소통의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게 되기도 한다.

위의 동화에서 제시하는 문제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와 ‘자율성 존중 원칙(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이 충돌하는 문제이다. 아이들은 동화를 읽고 함께 대화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판단이 좀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일까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여기서 온정적 간섭주의란 라틴어 pater(father)에서 유래된 말인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상징한다. 미성년 자녀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인생 경험이 풍부한 아버지가 대신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말한다.⁸¹⁾ 부모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는 간섭할 수 있고, 잔소리도 가능하며, 때로는 신체적 억압이나 강요도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⁸²⁾을 내세워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기 원한다.

이에 그림책을 활용해 아이들과 철학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자유’에 대한 생각이 표현되고,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며, 갈등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

81)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편,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2003. 113쪽

82) ‘자율성 존중원칙’이란 개인은 누구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생명의료학에서는 자율성 존중 원칙의 목적은 인간존중사상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진료행위나 실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환자나 실험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간존중 사상과 인간의 자율성존중을 역설한 대표적인 철학자는 칸트와 밀이 있다. 칸트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 지침인 준칙이 하나의 도덕 규칙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원리로 정언명법을 언급하며, 이 정언명법을 그는 인간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모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능력을 갖기에, 한 개인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 원리에 근거하며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 즉, 개인은 절대적 자유를 누리는 반면, 행위의 영역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자유주의의 기본원칙 아래, 우리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를 존중해주며,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

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3) 탐구지 구성

1. 주인공 아이들이 네모 상자 속에 갇힌 이유는 무엇인가?
2. 네모 상자 속에 갇히기 전 어떤 절차가 있었나?
3. 네모 상자 속에 갇히기로 한 결정은 누가 한 것일까?
4. 네모 상자 속에 갇힌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내놓은 의견은 무엇인가?
5. 여러분은 이 주인공들이 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6.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들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나?
7. 아이들과 어른들 사이의 갈등은 무엇으로 인한 갈등인가?
8. 주인공 아이들은 ‘자유를 달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
9. 공공의 장소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라고 할 수 있을까?
10. 공공의 장소에서 꼭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을까?
11. 만약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2. 위 그림책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겪는 일상에서의 갈등은 어떤 게 있나?
13. 합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기준은 무엇인가?

2) 만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다음의 만화는 한겨레 신문이 연재하고 있는 ‘비빔툰’⁸³⁾의 한 장면이다.

(1)자료구성



83) 한겨레신문에서 매주 연재되고 있는 만화이다. 가족간의 갈등과 아이들의 마음을 실감나게 잘 묘사하고 있으며, 시사적인 터치와 함께 주제의식이 뛰어난 만화이다.

(2) 주제 및 학습 목표

아이들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게 있다. 아이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에게나 누군가를 소유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⁸⁴⁾ 아이들의 경우 특히 장난감을 갖고 싶다거나 게임기를 갖고 싶고, 애완동물을 갖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 위 만화에서도 아이들의 그런 욕구를 표현해주고 있으며 이에 어른들의 태도는 후처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이에게 후처리에 대한 강요나 제약을 가함으로써 일종의 계약 관계를 성립하려 한다. 이러한 이상은 누구나 한번쯤 겪게 되는 일인데 이런 상황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위 만화의 내용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적 물음은 무엇인가.

위 만화가 다루는 철학적 주제는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공동체가 희생해도 되는가’와 ‘개인은 자신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경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지 않아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가 간섭하고 다스릴 권리가 없다. … 그러나 다른 사람의 행복 증진을 위해 자기 이득을 버리는 노력은 감소시킬 것이 아니라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⁸⁵⁾고 한다. 밀은 『자유론』에서 인간의 사회적 자유에 대한 고유한 사상을 전개한다. 그는 우선 사회나 국가가 정당하게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를 규정한다. 나아가 개인의 고유한 권리인 욕구의 실현과 관련된 행동의 자유는, 그 행위가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개인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후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전제를 이루게 된다. 그는 또한 소수 의견이 보호, 존중되기 위해 토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체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

84)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정과 안전의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4단계는 자아존중의 욕구, 5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인간의 소유욕은 생리적인 욕구이면서도 안정과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의 욕구 모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85)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최요한 옮김, 서울 : 홍신문화사, 2004. 168쪽

람들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에게 있어 바람직한 자유의 행사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상대방이 피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이 필요하며, 그 책임의 한도는 상호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상호간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았을 때는 행동을 통제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줄어들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함을 반드시 인지해야 할 것이다.

(3) 탐구지 구성

1. 위 만화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2. 주인공 아이와 엄마의 갈등은 무엇 때문인가?
3. 엄마는 왜 햄스터 키우는 것을 반대하고 있나?
4. 햄스터를 키우고 싶은 아이의 생각과 키우지 못하게 하고 싶은 엄마의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5. 주인공 아이가 햄스터를 키우게 됐을 때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6. 엄마는 햄스터를 키워도 된다고 허락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7. 여러분은 이 만화의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없는가?
8.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거나, 얻게 되었을 때 책임져야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9.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피해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0. 모두가 이로운 해결점은 없을까?
11. 이와 같은 갈등의 상황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해결점은 무엇일까?
12. 모두에게는 이롭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로울 때 가장 공정한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

3) 신문을 활용한 철학교육

다음 신문의 기사를 잘 읽어보자.

(1) 자료 구성

[기사 1]

초등학교 방학 시즌만 되면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들이 긴장한다고 한다. 성인을 능가할 정도로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 초등학교 등 10대 네티즌들의 인터넷 접속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욕설과 반말을 일삼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 경우 집단으로 게시판을 비방 글로 도배질하여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모두 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폭력인 셈이다.

/세계일보 2005년 6월 29일자 중에서

[기사 2]

"ㅋㅋ 도배란 이런 것이다."·"ㅋㅋ 도배 짬뽕(재미있음)." 한 누리꾼(네티즌)이 유명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잇달아 10만 건이 넘는 글을 올리며 게시판을 '점령'해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도배'란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에서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사용하는 누리꾼 사이의 은어로, 벽지를 바르듯이 같은 글을 계속해서 올리는 것을 뜻한다.

/한겨레 2005년 6월 27일자 중에서

[기사 3]

"저는 초등학교 5학년(학생)입니다. 인터넷 용어와 욕을 쓰시는 분들을 초딩이라고 못박지 마세요. 착한 초등학교도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이라고, 초등학교만 그런 것 한다고 못박지 마세요."

한 초등학교가 인터넷에 올린 이 글은 좋지 않은 일에 초등학교를 연루시키는 인터넷 문화에 대한 억울한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등학교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좋지 않은 의미에서 쓰는 경우 '초딩'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네티켓이 엉망인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초등학교가 올린 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딱한 마음이 들었는지 "초딩=개티즌, 초등학교=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이것이 다른 점.", "초등학교이랑 초딩은 다른 거란다.

초등학교는 몸의 나이만 어릴 뿐이고 초딩은 정신적으로 나이가 어리단다", "초딩이라 함은 초등학교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건 적건 한심한 사람보고 초딩이라고 하는 거죠."라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초딩'이 '초등학생'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었다. '개티즌'은 인터넷 네티켓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을 비하하는 말이다.

/한국일보 2005년 6월 17일자 중에서

(2) 주제 및 학습 목표

댓글 폭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다. 댓글 폭력의 피해자는 일반 시민에서 부터 정치인,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살한 모 연예인이 댓글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였다는 풍문이 나돈 적도 있다. 이렇듯 정보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댓글'로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 문제이다.

위 기사에도 알 수 있듯이 댓글의 주체는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글을 알고,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모든 이에게로 확대되고 있다. 댓글은 정보 통신 사회에서 주요한 의사소통의 표현 수단이다. 하지만 댓글의 내용이 악성이거나, 비방용이거나, 이해 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사회의 또다른 쓰레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이미 인터넷 사용의 당연한 주체가 된 지 오래다. 가족이나 학교 홈페이지가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친구들과끼리의 '세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행해지는 언어폭력 사태이다.

인터넷상에서 폭력적 글을 남기는 건 범죄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정확한 인식이 부족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의 영역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것은 ① 의식이라는 내면의 영역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②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목적추구 자유, ③ 개개인 사이의 단결의 자유로 나눌 수 있다.⁸⁶⁾ 위의 기사는 그 가운데서 사상과 감정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사상이나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상과 감정을 표현 할 수도 있다.⁸⁷⁾

86) 존 스튜어트 밀, 앞의 책, 2004.30~31쪽

하지만 현실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억압당하고 있다.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큰 사건⁸⁸⁾도 많았고, 언론 탄압이 가장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크게 시사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사에 나타난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논쟁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사회 이슈이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까지 악성 댓글의 후진 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이에 위 자료를 가지고 아이들과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성 댓글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해보고, ‘표현의 자유’가 성립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다른 억압은 없는지(과대광고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다.

(3) 탐구지 구성

1. 위 신문기사 글에서 제기하는 공통된 문제는 무엇인가?
2. 기사의 내용처럼 인터넷 언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3. 위 (기사 1)은 초등학생들이 방학만 되면 인터넷에 들어와 악성 댓글을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기사이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사람들이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5. 여러분도 악성 댓글을 써 본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가?

87) 대한민국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는 아래와 같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88) <미술교사 부부 알몸사진 인터넷 게시 논란>, 2001년 5월 28일자 중앙일보 31면, <창작·표현의 자유와 명예 훼손>, <MBC의 엽기적인 성기 노출 생방송>, 2001년 5월 28일자 중앙일보 31면

6. 악성 댓글을 쓰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
7.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8. 만약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9.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

4) 동화를 활용한 철학교육

(1) 자료 구성

잔소리 해방의 날⁸⁹⁾

A . 노르덴 글 / A . 핀케넬레 그림

일주일 전부터 푸셀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푸셀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너무 많이 참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푸셀은 불평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세요!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잔소리라니?”
 아빠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는 항상 ‘이거 해라.’, ‘저건 하지 마라.’, ‘너 또 일을 저질렀구나.’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말이예요.”
 “우리라고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재밌어서 그렇겠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이도 안 닦고, 설거지도 돕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을 거고...”
 “그럴테죠. 하지만 하루쯤은 잔소리를 안하실 수 있잖아요.”
 “너한테 참견하지 말라는 거니?”
 “딱 하루만이라도 제 맘대로 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다요. 엄마 아빠는 간섭하지 말아 주세요요”
 두 분은 푸셀을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푸셀의 눈에서 그 일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딱 하루만이야. 우리는 네가 위험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푸셀은 기뻐했습니다.
 “그럼요 아빠.”
 엄마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언제 할래?”

89) A 노르덴, 『잔소리 해방의 날』, 온누리, 경기대학교 문학연구회 편. 1997.

“내일이요.”
푸셀이 대답했습니다.
8월 11일!
이 날은 ‘잔소리 해방의 날입니다.’

(중략)

“엄마 편지 한 장 써주세요?”
“편지라고? 무슨 편지.”
“제가 숙제를 못했잖아요.”
“아! 그러면 무슨 핑계를 대야하지?”
“그러니까... 제가 배가 아팠다고 써 주세요.”
엄마는 생각했습니다.
“네가 숙제할 생각이 없었다고는 써 줄 수 있어.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지?”

(후략)

(2) 주제 및 학습 목표

위 동화는 어른들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동기 연령의 아이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동화이다. 주인공 어린이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로 부터 해방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고 이 생각을 전달하였다. 결국 엄마 아빠로부터 벗어나 하루종일 ‘자유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하룻동안 만큼은 온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음껏 놀다보니 숙제를 하지 못하게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부모님의 잔소리, 어떻게 봐야 할까. 자식을 위하는 마음의 순수한 표현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의 표현인가. 아이들은 부모님을 비롯해 어른들의 잔소리를 대부분 싫어한다. 부모님이 주로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숙제 해라’, ‘공부 해라’, ‘책 읽어라’, ‘씻어라’, ‘밥 먹어라’ 등이다. 이런 잔소리의 내용은 대부분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왜 이런 잔소리를 싫어할까. 그것은 아마도 왜 그런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지 못했던가 아니면 하기 싫은 것들이거나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자유’를 빼앗기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낫다면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하도록 할 수 있는가이다. 인간은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모델 학습, 자극과 강화가 필요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스스로에게 이로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까지는 수많은 물음과 토론에 의한 자극, 내면화, 상과 벌에 의한 동기화가 필요한 것이다.⁹⁰⁾

위 동화를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아이들이 겪는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토론 할 수 있을까? 이 동화를 읽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 보았다.

(3) 탐구지 구성

1. 푸셀은 왜 잔소리 해방의 날을 달라고 했나?
2. 푸셀의 부모님이 한 잔소리의 내용은 무엇인가?
3. 여러분은 푸셀의 부모님이 한 잔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 여러분은 잔소리를 듣지 않나요? 듣는다면 주로 듣는 잔소리는 어떤 내용인가?
5. 여러분이 듣는 잔소리 가운데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6. 여러분이 부모님은 왜 그런 잔소리를 하는 걸까?
7. ‘공부하라’, ‘숙제 하라’, ‘학원 가라’와 같은 잔소리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
8. 잔소리가 왜 듣기 싫은 걸까?
9. 여러분에게도 ‘잔소리 해방의 날’이 있었으면 하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10. ‘잔소리 해방의 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11.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나쁜 점이 있다면?
12.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무엇일까?
13.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한다.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14. ‘자유’에 따르는 ‘책임’의 예를 들어보자.
15. 자유에 책임이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90) 이성진 외, 『교육심리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7, 158~168쪽 참조.

4.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체험학습이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오감을 통하여 직접 경험하고 온몸으로 체득하는 모든 것으로 이것을 학습과 관련하여 얻어 볼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자라고 자연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의문을 가지면서 성장 발달한다.

그러나, 현대의 청소년들은 도시화, 기계화되어 있는 사회구조 속에서 체험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보았을 때 지식 위주의 편중된 교육, 경직된 교실분위기, 창의적이고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의 기회부족으로 인해 아이들이 습득해야 할 할 지식과 인성, 사고가 원활하게 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늘 갇힌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가 메마르고, 지적 능력 또한 학습량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한 사설 입시학원에서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7개 고교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과목에 대해 88년 실시한 똑같은 문제로 표준학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점수가 400점 만점에 224.7점으로 34.9점이나 낮아졌다”⁹¹⁾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 과학적인 데이터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아이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세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갇힌 공간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체험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감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론과 지식의 전달은 물론 문제해결에 직접 참여하여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교육 활동이다.⁹²⁾ 아이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조화와 질서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체험학습의 중요성을 깨달아 자신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체험 교육의 범위는 다양하다. 다양한

91) 이종훈,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철학교육연구』 제 16권 29호, 2000, 6쪽

92) 체험 학습을 가면 책에서만 보던 꽃과 나무, 풀, 벌레, 유적지 등 살아있는 교과서를 마주하게 된다. 말로만 듣거나 책으로만 보았던 세계를 직접 보면서 느끼는 경이로움은 세상에 대한 눈을 더욱 밝게 해준다. 또한 체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은 아동으로 하여금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식에 대한 과학적, 실험적 탐구학습,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견학 및 조사학습, 고유의 전통의식과 자연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생태기행 체험학습 등 다양하다.

논자가 1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생태, 역사 체험을 다니면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 체험학습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자연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② 주변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관찰력 생기며 ③ 사물과 사물, 사건과 사건,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 역사와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배양되고 ④ 이 세계를 좀 더 열린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어린시기, 특히 초등학교 일 때는 절대적으로 열린 공간에서의 체험 활동을 권장한다. 또한 체험 학습을 통해 철학 교육도 가능하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사고도 자연스럽게 열리기 마련이다. 체험의 장소에 머무르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그 속에 숨은 비밀을 찾아내고, 살아있는 것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활동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철학교육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체험학습과 ‘자유’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이다.

어쩌면 체험 학습 그 자체가 ‘자유’이다. 아이들이 갇힌 공간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느끼는 해방감, 그것을 아이들은 ‘자유’라고 규정할 것이다. 넓은 세계에서 마음껏 누리는 감정과 행동, 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데서 마음의 불안과 답답함, 사고의 경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아이들에게 ‘자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놀이’를 즐기고, 열린 공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철학교육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논자가 철학교육의 한 모형으로 체험학습을 통한 ‘자유’ 문제 탐구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⁹³⁾

93) 위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은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틀을 가지고 각 차시마다 별도로 수업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차시마다 학습의 목표, 토론주제, 활동 내용, 결과물 활동지, 평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위 내용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논자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서 가 볼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하여 틀을 제시하였다. 지역 상황에 맞춰 장소 배정은 달리 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 학년에 따라 진행의 내용이 다소 수정될 수 있다.

<체험학습을 통한 철학 탐구공동체 수업 학습 계획안>

| | | |
|-------------------|--|--|
| 탐구 주제 | 체험 공간에서 만나는 '자유'의 문제 | |
| 대상 학년 | 초등학교 5.6학년 | |
| 학습 목표 | 1. 역사체험을 통해 역사, 생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경험을 갖는다. 2. 역사체험을 통해 '자유'의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역사체험을 통해 세계의 연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 |
| 1차시 | 몽고의 침략과 그 저항의 흔적들 | 대몽항쟁의 마지막 역사의 현장을 찾아 그 곳에서 발견된 역사유적을 살펴보며 '자유'를 향한 몸부림을 되새겨본다, 또한 주변에 있는 김통정 장군이 솟아나게 했다는 샘물의 흔적을 살펴보고, 김통정 장군의 부인이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붉은 오름을 오르는 것도 의미있는 활동이다. ⁹⁴⁾ |
| 2차시 | 제주의 유배지 |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에 있는 '추사유배지'(제주 지방 기념물 제 59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를 찾아 추사 예술의 진면모를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배인으로서의 삶과 '자유'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 3차시 | 일제의 탄압과 자유를 위한 항쟁 | 제주 항일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는 '해녀항쟁'이다. 해녀 항쟁의 대표적인 역사적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도 해녀 항일 기념비'를 찾아 삶과 역사의 주체로서의 연하게 살다간 해녀들의 삶을 반추해본다. |
| 4차시 | 4.3사건과 아픈 역사의 현장 | 제주인에게 4.3사건은 가장 아픈 역사다. 제주의 땅이 초토화되었던 아픈 역사의 현장을 찾아 사라져 간 마음의 흔적, 증언, 죽음의 현장들을 보면서 '자유'를 향한 민중의 피울음 소리를 기억하게 한다. |
| 유의점 및 준비자료 | <p>1. 위의 내용은 역사를 교과서에서 배웠거나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삼았다.</p> <p>2. 위 프로그램이 실제 적용되려면 하루 시간을 전부 할애해야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학기 중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방학 기간을 통해 프로젝트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p> <p>3. 위 프로그램의 목표를 학습자에게 최대한 도달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찾아갈 장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주변 배경에 대해 설명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설명 자료 라 함은 글로 설명된 자료, 그림이나 사진 자료, 영상 자료 등을 말한다. 그리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자료할 수 있도록 카메라와 녹음 기구 외 필기도구를 준비하는 것도 필수이다.</p> <p>4. 탐구의 진행은 차시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학습 계획안을 수립하고, 참여자가 주도하는 형식과 교사가 인도하는 형식을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의 결과물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p> | |

| | |
|--|--|
| | <p>5. 위 프로그램의 목적은 ‘체험 학습을 통한 철학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사는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철학적 물음들을 미리 준비하여 가야하며 자유로운 대화와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체계적인 수업안을 마련해야 한다.</p> <p>6. 체험의 결과는 다양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발표, 평가 하는 시간을 기록으로 남았을 때 더욱 학습에 대한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얻게 된 지식이나 감흥, 사고가 내면화될 가능성이 높다.</p> |
|--|--|

이상은 어린이 철학교육의 텍스트와 철학 수업의 구체적인 모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밖에도 수많은 교재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재는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사건과 수만 가지의 사물들과 현상들이다.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사건이 모두 생각의 꺼리가 될 수 있으며 세상을 이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이에 직면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대화하는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가능하다.

IV. 결론

어린이는 철학할 수 있는 존재이다. 철학을 꼭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고정 관념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성향과 특성상 어린이는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어린이들은 물음을 통해 그 경이로움과 호기심을 드러낸다. 그런데 어른들이 문제이다. 어린이에 대한 잘못된 관념으로 물음의 원천을 봉쇄해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의 철학적 물음은 싹을 잃게 되고, 어른들이 주입한 관념으로 세상을 알아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은 지식이나 관념일 뿐이지 스스로 깨달은 ‘앎’은 아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지식과 관념은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철학교육의 목적이 ‘삶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게 함’이라면 이제 우리의 철학교육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우선 어린이에게도 철학교육이 가능하며,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한 철학교

94) 2005년 4월 23일자 오마이뉴스 연재 기사, “실패와 좌절의 제주도 장수 설화” 참조

육이 논리적 사고력을 탄탄하게 배양하며, 사물을 다각적으로 보는 창의적 관점을 갖게 되며, 나아가서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있게 재구성하는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계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과제를 정해 창의적으로 답해 나아가는 능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사고 능력을 키워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어린이의 사고 능력은 단순히 밖에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데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어린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답하기 위해 노력할 때, 사고 능력이 키워진다. 철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가치와 믿음을 넘어서 그것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 근원적으로 탐구한다. 보다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사회의 경향 속에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기 위해서 철학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냐의 문제다. 물음을 던져오는 자는 있는데, 그 물음에 대답해주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 물음의 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물음을 받아주고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는 자는 있어야 한다. 그 물음의 상대자는 어른이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부터 어린이 순수성을 잃지 않게 하는 조력자가 되어야 하며, 물음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알고자 하는 세계에 근본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또한 철학교육의 대상이 어린이임을 감안할 때 어렵고 딱딱한 철학교재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와 소재를 통해 철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들과 가장 가까운 소재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는 그림책, 만화, 동화, 신문 기사와 같은 매체들이다. 그리고 교과서야말로 늘 끼고 다니는 교재이기 때문에 가장 접하기 쉬운 텍스트이다. 아직 우리나라 초등학교에는 철학 과목이 교과 과정으로 편성되지 않았다. 교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철학교육이 필요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갈수록 사고의 힘을 잃어가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며 복잡해져가는 세계에 당당히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따라서 기존 교과 과정에 철학적 물음을 보완하여 통합적 사고의 체계를 길러주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에 철학교육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다양한 소재로부터 다양한 철학적 물음을 던질 수 있도록 텍스트의 개발과 통합적 수업의 진행, 원활한 대화와 토론을 위한 질문 기술의 개발이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단행본

- A . 노르덴 글 /A . 핀케넬레 그림, 『잔소리 해방의 날』, 경기대학교 아동-청소년 문학연구실 옮김, 서울: 온누리, 1997.
- G. 매튜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철학』, 서울교육대학철학연구동문회 옮김, 서울: 서광사, 1987.
- _____, 『어린이를 위한 철학이야기』, 황경식·김성옥 옮김, 서울: 샘터, 1988.
- M 리프먼 외. 『세살 철학 여든까지』, 여훈근 외 옮김, 서울 : 정음사, 1986.
- T.W.바이넨, S.라이스버그, 『철학,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황경식 옮김, 서울: 서광사1991.
- 가와이 하야오 외, 햇살과 나무꾼, 『그림책의 힘』, 서울: 마고박스, 2004.
- 강영안, 『강교수의 철학 이야기』, 서울: IVP, 2001.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 도덕과 5학년 2학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 교육인적자원부, 『초등 사회과 5학년 2학기』,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 김종표 외, 『명강의 교수법』, 서울: 양서원, 2006.
- 김창걸 외, 『교육학 개론』, 서울: 형설, 2006.
- 남경태, 『개념어사전』, 서울: 들녘, 2006.
- 남국용권, 『교육의 역사 철학적 기초』, 서울: 학문사, 1995.
- 루소, 『에밀』, 신윤표 옮김, 서울: 산수야, 2005.
- 르네 데카르트, 『방법서설』, 이현복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7.
- 마쓰이 다다시, 『어린이와 그림책』, 이상금 역, 샘터, 2007.
- 박해용, 『청소년을 위한 서양철학사』, 서울: 두리미디어, 2002.
- 서남희, 『그림책과 작가이야기』, 서울: 열린어린이, 2006.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교육의 목적』, 오영환 옮김, 서울: 궁리, 2006.

- 어린이 철학 연구소, 『혼자서 크는 아이』, 서울: 산하, 2002.
- 엘리어트 아이즈너, 『교육적 상상력』, 이해명 역, 서울: 단국대학교출판부, 1999.
- 이상금, 『그림책을 보고 크는 아이들』, 서울: 사계절, 2002.
- 이성진외, 『교육심리학』, 서울: 한국방송대학출판부, 2007.
- 이주환, 『교육의 역사와 철학의 탐구』, 서울: 창지사, 2007.
- 정옥분,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2002.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최요한 옮김, 서울: 홍신문화사, 2004.
- 최영창, 『철학과 인생』, 서울: 한글, 2003.
- 토니 모리슨, 『네모 상자 속의 아이들』, 이상희 역, 문학동네 어린이, 2000.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 황문수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2007.
- 한국의료학회 편, 『의료윤리학』, 서울: 계축문화사, 2003.
- 현정환,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창지사, 2005.

2. 논문

- 김호룡, 「학습자 중심의 모둠토의 철학 수업」, 『철학교육연구』 제15권 제 28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9.
- 김희용, 「어린이 철학교육과 방법론 및 도덕교육에의 활용」, 『초등교육학회』. 2002.
- 선재순, 「철학함을 가르침의 참된 의미」, 『철학교육연구』 제 18권 제31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002.
- 신원우,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한 모형 연구」, 『철학교육연구』 제 15권 제 28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1999.
- 윤석우, 「플라톤의 『파이돈』을 통한 철학교육의 한 모형」, 한국철학교육연구회, 제 14권 제 27호, 1998.
- 이종훈, 「초등학교 철학교육의 필요성과 문제점」, 『철학교육연구』 제16권 29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000.
- 좌경옥, 「철학교육의 도덕적 효과」, 『도덕교육연구』 제7편, 1995.

주영기, 「철학교육의 현황 및 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철학교육연구』 제 18권 31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002.

주영기, 「철학교육의 현황 및 교재개발을 위한 제언」, 『철학교육연구』 제 18권 28호, 한국철학교육연구회, 2002.



A Model for Philosophy Education for Children

Philosophy is not the subject that just teaches theories proposed by thinkers or philosophers but the one that poses questions on the mankind in a fundamental and comprehensive perspective. In this context, philosophy forms the foundation of all the learning as well as of the living. However, so far the philosophy education has been mainly knowledge-based with an emphasis put on the history side of it, not related to the reality of the learners.

Accordingly, first-learners in philosophy for children should be taught how to ask themselves questions about things, familiar to them in their daily life rather than not pertinent to them. So, it is desirable that they learn it not only with textbooks, picture books, story books, fairy tales, cartoons, newspaper articles but also through field trips.

Children are in-born philosophers. When children start to talk in earnest from the age of 3, they constantly ask questions, why. But, grown-ups frequently ignore such questions, thinking those foolish questions and, eventually, discouraging the children from developing those questions.

Then, when is it possible for children to learn philosophy? It might be when they are able to think. However, the study of philosophy cannot be done just with thinking. It becomes possible when they know how to raise questions, converse with others, and read or translate thoughts written by others. That said, the possible age may be around the age of five. However, in this study, the subjects of the children in learning philosophy are limited to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ged between 6 and 12.

The objectives of teaching children philosoph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1. to foster the ability to infer 2. to develop logical and critical thinking 3. to be able to have a in-depth conversation about things around them 4. to cultivate thoughtfulness towards other people and esteem for life. In overall, it can be said that philosophy education is to stimulate them to think and to improve such an ability to think.

Then, how is 'thinking' possible and how can we foster the ability? Among various ways to do it, the main ones would be through observation, conversation and discussion. Historically, it is probable that a great number of philosophers have brought about questions, observed objects in depth, and had thorough conversations with their teachers or disciples before wrestling with books for decades to establish philosophical theories.

Of the methods, I think the Socratic dialogues are still one of the most excellent educational ones to date. In addition, Decartes' method of doubt is also thought to be an important one in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things. One can achieve thinking close to the true nature after weighing and measuring all things by using skeptical questions with the help of Philosophical Inquiry Communities where each question is weighed and understood through dialogues. Therefore, the process of discussion using the method of doubt, the dialogues and Philosophical Inquiry Communities is recommended as one of the desirable models for philosophy education.

Given that philosophy is a medium to solve problems of life, what problems do children have in their lives? Among various problems, the major problem that they most desperately appeal for is that of freedom. Accordingly, this study has provided the methods how the problem can

be approached in a philosophical manners through texts, media and field trips. The 'freedom' matter can not be resolved with one lesson in philosophy. However, it is believed that children will be able to develop their thinking

while having discussions in a systematic, concrete and constant way and further, attain the open-minded attitude to accept their lives actively.

To realize the above purposes, it is extremely important that teachers should continuously improve themselves to develop their teaching skills and stimulating hands-on teaching materials so as to encourage children to learn in a open-minded and child-centered learning environment.

